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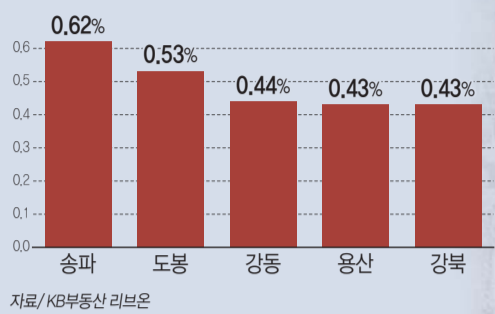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249.37 (0.00)	코스닥	815.30 (0.00)
금리 (미국 3년)	0.796 (-0.003)	환율 (원/달러)	1191.30 (-3.10) (7.31)



[종합]
아시아나
기안기금
지원 자격 논란
02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전세가격 주간변동률



임대차3법 ‘쇼크’ 서울 전셋값 폭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작용
서울 전셋값 전주대비 0.29% ↑
강남 일대 1억 이상 오른 물건도

전세 줄고 반전세·월세 증가 예상
4년 마다 전세가격 급상승 우려도

서울아파트 전셋값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임대차3법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강남 일대 아파트에선 1억원 이상 오른 전세 물건이 등장했고, 강북에서도 5000만원 이상 오른 전세물건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전셋집이 급격히 줄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3법’ 중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해 이날부터 시행됐다.

서울 일부 지역에선 제도에 불만을 가진 집주인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월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4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예고가 도화선이었다. 강남4구 중 한 축인 송파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으로 대표되는 지역 중 하나인 도봉구가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이전의 5% 내외로 올릴 수 있도록 한 상한제 도입과 최소 4년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갱신요구권 도입이 핵심이다.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7월27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4%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21%)과 5개 광역시(0.10%), 기타 지방(0.03%)은 전주 대비 상승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29%를 기록했

고, 경기(0.21%)도 상승했다. 서울은 송파구(0.62%), 도봉구(0.53%), 강동구(0.44%), 용산구(0.43%), 강북구(0.43%)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다수의 지역이 올랐다. 그 중 강남과 강북권에서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송파구와 도봉구는 특정 아파트 위주로 전세물건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79년에 완공한 송파 장미1차(전용면적 71.2㎡)는 지난달 28일 5억원에 전세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5월 3억8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송파구에서는 장미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세 물건을 찾아볼 수 없다.

송파구는 재건축 예정 단지를 매입한 갭투자자들이 내놓는 전세물량 가격이 올랐다. 현재 송파구 3.3㎡당 평균 전세 가격은 2029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가 포진한 도봉구는 전세물건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 임대차3법 시행 예고로 불안을 느낀 갭투자자들이 금액을 올리며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도봉구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917만원이다.

상계주공19단지(전용면적 84.9㎡)는 3억1000만원에 전세물건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5월 2억4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도봉 역시 주공19단지를 빼면 전세물건이 나온 게 없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21%로 상승했고, 인천(0.05%)은 소폭의 상승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용인 기흥구(0.66%), 광주(0.61%), 광명(0.59%), 안양 만안구(0.57%), 고양 일산서구(0.38%)가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부평구(0.18%), 연수구(0.07%), 중구(0.06%), 계양구(0.02%)가 상승했다.

한편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전 지역 상승을 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매매는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 위주 거래가 활발할 것이며 전세는 물건 품귀현상으로 가격 상승을 이어왔지만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당분간 보합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회사위기? 난 몰라”...귀족 車노조의 마이웨이

완성차 판매실적 21.5% 급감에도
현대·기아차 등 노조 임금인상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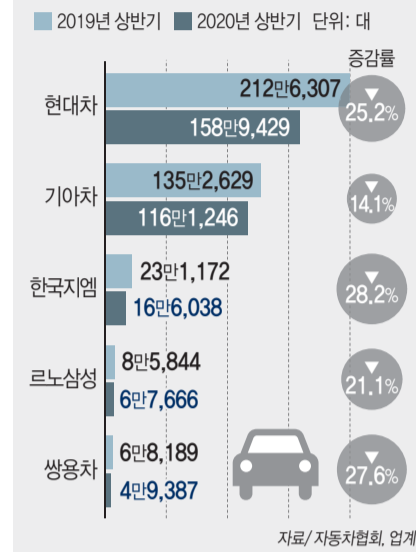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상반기 판매실적이 20% 넘게 급감한 가운데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회사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화합모드’를 언급해 온 현대·기아차 노조도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자 이를 지켜보는 여론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2일 자동차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완성차 5개사의 내수와 수출을 합산한 판매실적은 303만 3798대로 전년 동기 보다 21.5% 감소했다. 완성차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때 총 판매대수가 800만대까지 접근했던 현대차그룹은 올해 600만대도 불어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급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한국지엠지부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모두 동일

국내 완성차 5개사 상반기 판매량



하게 기본급 월 12만304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급속노조의 올해 임금인상 공동요구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7일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조1856억원으로, 이를 현대차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4600만원에

달한다. 요구안에는 연간 174만대 가량의 국내공장 생산량 유지, 해외공장 추가 생산 물량의 국내 이전, 고용안정 기금 마련, 완전 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 사회적 합의, 정년 퇴직자를 단기 고용해 활용하는 시니어 촉탁 제도 연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노사는 여름휴가 이후 상견례를 시작해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한다. 기아차 노조도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본급은 현대차 노조와 동일한 월 12만304원을 인상하고, 성과급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당 5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별도 요구안은 현대차 노조보다 무리한 내용이 많다. 전기차·수소차 생산라인 및 핵심부품 공장 내 생산, 노동강도 완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4500억원 투자, 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확대 적용, 본인수당 인상, 부품사단가 인상, 사회공헌기금 영업이익의 0.5% 출연, 중식시간 유급화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6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물에 잠긴 반포한강시민공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 일부가 한강 수위 상승으로 흙탕물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넘쳐나는 유동성, 공모주 투자 몰린다

신용거래용자 잔고 14조 ‘사상 최고’
최근 4개 일반청약 경쟁률도 최고

시중에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공모주 시장이 뜨겁다. 최근 일반 청약을 진행한 공모주 청약경쟁률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공모주 시장의 과열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자금을 빌린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4조211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3월 26일과 비교하면 4개월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신용거래용자는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하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의 과열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식 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인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6월 26일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 30일 기준 47조원을 유지하고 있다. 고점에 비하면 줄었지만 작년 평균(27조3932억원)과 비교하면 72.9%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증권사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 주식 투자를 기다리는 자금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SK바이오팜 이후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이 대기 자

금을 넣어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기업공개(IPO) 주식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것.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달 23~24일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 31조원이 유입되면서 주식예탁금이 50조원까지 치솟았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자에게 매력있는 종목이 나오면 막대한 시중 유동성이 공모주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진행된 4개의 공모주 일반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경쟁률 5위 안에 모두 진입했다.

(4면에 계속)
/손범기 기자 sonumji301@

아시아나, '기안기금' 지원 자격 싸고 논란

코로나 전부터 부실, 자격안돼 vs M&A실패맨 지원 마땅

기안기금 운용심의회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적자 누적 실적 악화에 객관적인 자료 필요

금융당국

인수 교착상태... 요청자격 충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두고 금융당국과 기안기금 운용심의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에 인수되지 않을 경우 기안기금 자격요건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금운용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이 곧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했던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운용심의회는 지난달 30일 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제10차회의를 마치고 비공식으로 아시아나항공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는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40조원 규모의 기



아시아나 항공기

/아시아나 항공

안기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이날 기안기금 운용심의회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 대상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안기금지원절차에 따르면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여부와 코로나19 이전 구조적 부실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기안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코로나19 이후 실적이 나빠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적자가 누적되는 등 부실기업이었다는 판단에서다.

아시아나항공은 LCC(저비용항공

사) 난립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2018년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2456억원)에 비해 10분의1 수준인 282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한·일 갈등, 미·중 무역갈등 여파까지 겹치며 2019년에는 4438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적이 나빠졌고, 적자가 누적됐다는 게 문제"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견은 금융당국의 의견과 배치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

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교착상태에 있다"며 "(현산과 거래가)되지 않은 경우 기안기금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안기금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지만, 계약이 무산된 이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이 또다른 부실기업 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악화 기간은 2년 정도다. 지난 2018년 결산 재무제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아시아나항공은 4일만에 '적정'으로 정정됐다. 지난해 4월에는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정부로부터 1조6000억원의 지원을 받으며 강도 높은 자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쌍용차에 비해 부실이 덜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할 경우 쌍용차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쌍

용차의 경우 2017년부터 올 2분기까지 14분기 연속 적자를 냈고, 연간 기준으로도 3년 연속 적자다.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은 2819억원으로 전년(642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구조적으로 부실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기안기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했던 기업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기안기금은 구조조정자금이 아니라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되기 위해 마련된 만큼 기안기금으로 경영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는 기준을 지키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안기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매출 감소 등이 진행된 기업이 대다수인데, 객관적인 자료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9개 매장 폐점

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한일 관계 악화 등 여러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이번달 국내 9개 매장을 폐점한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한일 관계 악화 등 여러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두산중, 클럽모우CC 1850억 매각 완료

1200억 규모 채권단 차입금 상환

경영위기로 3조6000억원을 지원받은 두산중공업이 채권단에 차입금 상환을 시작했다.

두산중공업은 하나금융-모아미래도 컨소시엄과 클럽모우CC 매각 거래를 완료하고 매각 대금 1850억 중 일부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 비용 등을 제외한 돈으로 채권단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2일 밝혔다.

상환액은 12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번 상환은 채권단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이후 첫 번째 상환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첫 상환을 시작으로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린 뉴딜에 발맞춘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지난 6월 연내 1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자본 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산그룹은 두산솔루션과 두산타워 매각을 추진 중이며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인수 후보자들에게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발송한 상태다.

두산그룹은 올해 초 자금난을 겪으며 인적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채권단으로부터 총 3조6천억원을 지원받았다.

/양성운 기자 ysw@

항공사 무급휴직 확대에도 노동부 유유자적

고용유지원금 연장 갈림길

고용유지원금 만료 앞두고 업계비상티웨이·제주항공 무급휴직 신청 접수 노동부 "연장여부 8월 중순 이후 발표"

항공업계가 고용유지원금 연장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선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늦장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달 28일 '제 8차 본위원회 및 노사정 협약식'을 열고, 고용유지원 제도 확충에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여행, 항공,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대 180일간 고용유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급 기간 연장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항공업계에는 일단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전 항공사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국제선을 띄우지 못하게 되자 정부의 고용유지원금을 받고 유급휴직을 시행 중이었는데, 기존 고용유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8~9월 사이에 끝나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항공사들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상황



지난 달 28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

이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사들은 고용유지원금 지급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실제 고용유지원금의 지급 기간 연장이 적용되기까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생사의 기로에 선 항공업계의 사정을 알고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고용유지원금의 지급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항공사들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원금이라도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 항공사는 9월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무급휴직 개시 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인 8월 초~중순 사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가 '지급 기간 60일' 연장 여부를 8월 중순 이후에나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이어서 준비하고 있다. 지급기간 60일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걸 갖고 해야 하는데, 아직 고용정책심의회가 시행령 상 결정이 없었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이라 8월 중순 이후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일부 항공사들은 이미 무급휴직 고용유지원금을 신청하고 나섰다. 티웨이항공은 앞서 지난달 2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전환신청을 받고, 지난달 31일 무급휴직 고용유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제주항공도 이달 3~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항공사들은 9월 15일 전후로 고용유지원금 지원이 끝난다. 노사정 합의도 있고, 일단 8월 중순 정도에 고용부의 세부 지침이 나온다고 하니 그걸 보고 (무급휴직 전환 등) 결정하려 한다"며 "분위기로 보서는 현재와 동일한 규모로 진행될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빅테크는 되고, 은행은 안되고... 금융사 역차별 아우성

은행은 사업 승인에 하세월인데 빅테크는 금융규제 안받아 유리 카드사·은행 생존에도 영향 우려 금융사 규제 완화 시급 목소리

금융시장에 빅테크(BigTech) 기업이 진입하자 기존 금융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체와 제휴를 통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는 빅테크 기업과 달리 기존 금융사는 사업을 확장하려 해도 승인절차에만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서다. 금융사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1사 전속주의 규제 등을 풀어주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올 하반기 중·소상공인을 위한 '중소상공인(SME)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이들 상품은 최저 금리 연 4~10%대로 자체 개발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통해 대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의 67%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2030세대인 만큼 이들의 단골고객 비중과 평판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서비스가 금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현재 네이버 파이낸셜은 대출 서비스에 앞서 네이버 통장·자동차보험 비교견적·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이 서비스 모두 금융을 다루고 있지만 금융사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돼 금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사·빅테크 견해>

금융사	구분	빅테크
은행은 특정 보험사상품 25% 이상 판매 금지	보험상품 판매	상품광고일뿐 판매 아냐
여러 대출상품 동시 비교 어려워	대출비교플랫폼 (1사 전속주의)	소비자 편의성 높여주는 서비스
건전성 규제없이 사실상 신용공여	후불결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따라 건전성 관리
이자로 봐야	충전금 리워드 지급	소비자 이용정보 준 것에 대한 보상
빅테크 쇼핑검색정보도 줘야	마이데이터사업	네이버파이낸셜 결제데이터 정보만 제공, 그 외 정보는 네이버파이낸셜 데이터 아냐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직접 금융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금융사와 제휴를 맺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금융사 각자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휴를 열어두고 협력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서 금융사와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사, 네이버 단순 조력자로 보기 어려워

그러나 기존 금융사는 네이버파이낸셜을 단순 '조력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내놓은 서비스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상품은 은행과 카드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이 필요할 때 카드 단기대출, 은행의 대출을 주로 이용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신한·우리·현대·KB국민카드의 평균 단기대출 금리는 연 15.10%다. 상대적으로대출규모가 큰 은행들은 대출 심사기간이 최소 3~5시간 소요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소액이라도 빠르게 대출이 가능한 곳을 선호하기 마련"이라며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사업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을 집행하는 만큼 심사 속도가 빨라 카드 단기대출(금리)이나 은행 대출을 이용했던 소상공인이 갈아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카드사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고 대출 속도가 빠른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융사,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필요

이에 따라 금융사는 네이버파이낸셜, 핀테크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겸업할 경우 금감원 확인과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이 라이선스 없이 금융사가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금융사에겐만 규제를 강화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사들은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1사



모바일페이. /유투이미지

전속주의 규제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이 이 규제를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한해 풀어주면서 토스와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 금융서비스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이 같은 특례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기존 금융회사에 1사 전속주의가 남아 있는 한 빅테크에 예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장치에 대해선 금융사와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은 제휴를 통해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네이버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제휴를 했더라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이스피싱환급 통지서 12월부터 카톡으로 발송

금감원,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일환

올해 12월부터는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나 민원 회신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및 민원 업무와 관련해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민원인 역시 회신문을 서면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조회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기우편이 배송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수령률도 저조하다"며 "매년 서면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며,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으로 거쳐 전자등기우편을 바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2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행복을 싣고 나르는 티웨이항공

통영/거제 1박2일(매일출발)

229,000원 부터 (문의 해주세요)

한려수도의 아름다움과 동영
예향의 도시, 동영

즐거워 통영!
아름다운 자연, 천혜의 비경 속으로!

날짜	일정	비고
제1일	김포공항 - 김해공항 - 거제도(외도) - 통영	
제2일	통영 - 연대도(만지도) - 통영케이블카 - 통영시내투어 - 김해공항 - 김포공항	

- 포함내역 : 김포 - 부산왕복항공료,연계차량료(1박2일), 숙박료, 식사료(3식), 입장료,
- 불포함내역 : 기타 개인경비,여행자보험, 포함내역 외 식사

나라여행

NARA TOUR

02-542-7115

www.naratou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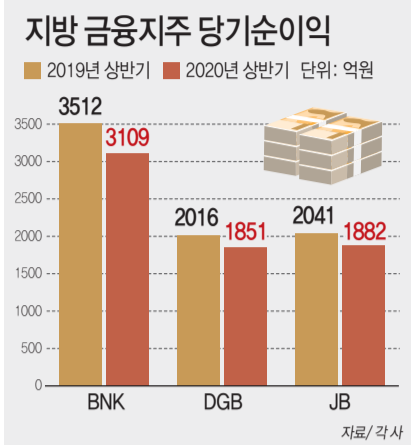
증권·캐피탈 등 '非은행' 약진에 코로나 넘어선 지방금융

지방 금융지주사 상반기 실적

BNK금융지주
3109억 순익, 비은행부문 18% ↑

DGB금융지주
1851억 순익, 전년과 유사한 실적

JB금융지주
1882억 순익, 전년보다 4.7% 증가



지방 금융지주사의 상반기 실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줄어 들었다. 하지만 총당금 적립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DGB금융지주는 전년 동기에 비해 8.2% 줄어든 1851억원의 순익을 거뒀다. 코로나19 관련 총당금 전입액 236억원을 감안하면 2016억원을 기록한 지난해 동기와 유사한 실적을 달성했다. BNK금융지주는 3109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익을 올렸지만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1.5% 감소했다.

두 회사 모두 비은행 계열사의 약진이 실적하락 방어 역할을 했다.

DGB금융그룹 내 비은행 부문의 약진이 눈에 띈다. 상반기에 비은행 계열사에서 하이투자증권 481억원, DGB생명 225억원, DGB캐피탈 180억원 등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7%, 48.0%, 22.4% 증가했다.

비은행권과는 대조적으로 대구은행에서는 상반기 순이익 13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22.1%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도 선방했다. 원화대출금은 전년 말 대비 6.5% 증가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NPL)과 연체율도 0.74%, 0.5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각각

0.14%포인트, 0.01%포인트 낮았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금융그룹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관리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NK금융지주 역시 은행부문의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비은행 부문의 실적으로 상당 부분 만회했다. 상반기에 BNK캐피탈 448억원, BNK투자증권 225억원 등 총 78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비은행부문 순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8%가량 끌어 올렸다. 255억원 규모를 추가 총당금으로 적립했지만 대손비용률은 오히려 0.44%로 하락했다. 또 NPL 비율은 2분기 1.05%를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보다 0.03%포인트 개선됐다.

JB금융지주도 상반기에 7.8% 감소한 1882억원의 순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상반기 순이익에서 코로나19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과 같은 일회성 요인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지난해 동기보다 4.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같은 노력을 통해 다음 분기를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소진공-나이스평가정보 업무협약 체결심사 모형 개편 등 협업 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나이스평가정보와 손잡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진공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비대면 금융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측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자동화 대출을 통한 비대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대출심사 평가모형 전면 개편과 신규모형 개발 등의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두 기관이 함께 낸다. 소상공인들은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



조보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나이스평가정보 신회부 대표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는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관련 서류를 갖추고 소진공의 전국 66개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으로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가상 캐릭터 재테크,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

금감원 Q&A

유사금융 플랫폼 재테크 주의

Q.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 과일 등 인터넷상 가상 캐릭터를 회원 간에 사고 팔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회원 모집글을 접하게 됐어요. 이런 것도 투자수단이 될 수 있나요?

A. 최근 가상 캐릭터를 거래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등 광고로 모집하는 재테크 상품들은 ‘유사금융 플랫폼 재테크 사기’일 가능성이 큼니다. 해당 업체들은 P2P,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혁신 재테크 기법을 활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수익원이 전혀 없는 단단계 금융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금융플랫폼 운영자들은 가상

의 캐릭터 등을 만들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취합니다. 또 신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만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며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지 않은 경우 마지막 구매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 형태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신개념 또는 혁신 재테크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만 아는 정보’라며 접근하는 지인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 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단단계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투자를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돌려막기형 단단계 사기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영석 기자

김광수 “금융 변화 직시해 미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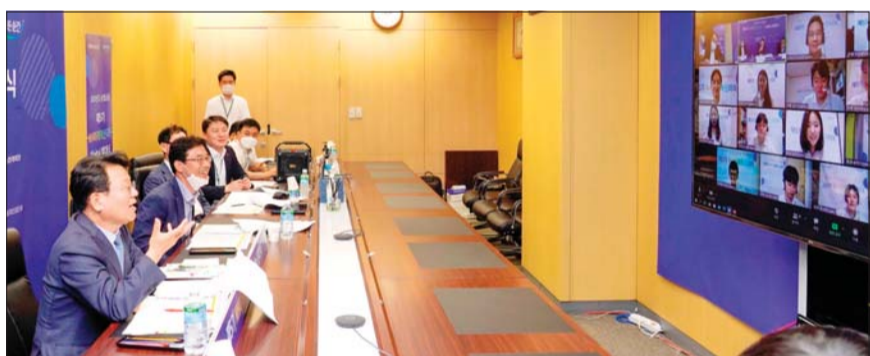
(NH농협금융 회장)

NH농협금융 미래혁신리더 발대식 화상회의 통해 미래혁신 공유·토론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금융의 미래와 변화·혁신을 주도할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표로 조직한 ‘NH미래혁신리더’의 5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NH미래혁신리더는 2016년부터 매년 은행, 보험, 증권 등 계열사의 젊은 직원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혁신조직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농협금융 본사 화상회의실에서 2020년도 5기 NH미래혁신리더 디지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광수 회장과 각 부문 부사장이 참석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면접을 통해 우수인재 16명을 선발했다. 또 발대식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김광수 회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농협금융 본사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NH미래혁신리더 발대식’에서 농협금융 김광수 회장(왼쪽 첫번째)이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한 혁신리더들에게 당부 말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장과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혁신리더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농협금융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 회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혁신리더에게 “여러분들의 혁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패기가 농협금융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 배포한 추천 도서 ‘아마존뱅크가 온

다’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금융을 잊고 미래를 직시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NH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5기 NH미래혁신리더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옴니채널(대면·비대면) 방식을 통한 체계적인 혁신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5월 기점 카드승인금액·전수 증가세 전환

여신금융협, 2분기 카드승인실적 발표

2분기 카드승인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해 민간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오프라인 중심의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카드승인실적 증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가 2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

수는 각각 222조5000억원, 56억1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1.8%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을 기점으로 카드승인금액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전체카드 승인 금액은 4월에는 지난해보다 승인금액이 5.6% 감소했지만 5월,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 11% 증가했다.

분야별로 도매·소매업 분야에서 온라인 구매 수요 증가, 자동차 판매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2분기 보다 카드 승인 실적이 16.1% 증가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카드승인실적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이동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운수업 카드승인실적은 전년 동기 보다 64.0% 급감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카드실적이 각각 6.8%, 8.1%, 43.2% 감소했다.

/이영석 기자

“저금리 지속시 공모주 수요 더 높아질 것”

>> 1면 ‘넘쳐나는 유동성...’서 계속

지난달 28일 일반청약을 받은 미용 의료기기 업체 ‘이루다’는 3040대 1로 사상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다음날인 29일 전문의약품 제조 기업 ‘한국과마’는 2035대 1의 경쟁률로 역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티에스아이, 엘이티가 뒤를 이었다.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K-OTC 시장도 최근 활황이다. 7월 한 달간 K-OTC 거래대금은 126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월(896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IPO전에 미리 주식을 사 놓으려는 투자자가 있다는 방증이다.

K-OTC시장에서 7월 한 달간 거래

대금 1위 종목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인 아리바이오로 약 618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해당기간 주가는 145.48% 급등했다. 다음은 코스닥 재상장을 추진 중인 바이오기업 오상헬스케어(309억원), 전통제 개발 바이오 기업 비보존(287억원) 순이었다. 해당 기업 모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주식시장에 이미 상장된 종목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수익을 챙기려는 수요가 많아졌다”면서 “저금리 지속과 양적완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음지 기자 sonumji301@

SK하이닉스 첨단동화

혹부리영감



만약 이때,
SK하이닉스 대용량 낸드플래시*
기술이

없었다면

있었다면

- 영감은 자신의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한다
- 혹을 떼려 거짓말을 하는 혹부리 영감들이 늘어난다
- 화가난 도깨비들이 혹부리 영감들에게 더 큰 혹을 붙여버린다

- 고음질 음원과 고화질 뮤직비디오가 담긴 SSD를 도깨비에게 선물한다
- 음악에 신난 도깨비가 영감의 혹을 떼어준다
- 도깨비는 프로듀서로 영감은 MC혹부리로 데뷔한다
- 대한민국의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린다
- 첨단 반도체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낸드플래시
데이터의 저장 장치로서,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보존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PC, 스마트폰의 주저장 장치로 활용.

삼성의 노하우 + 공정 혁신으로 마스크 생산량 2.5배 ↑

Q 르포 | 삼성에 마스크 노하우 전수받은 '화진산업' 가보니

삼성전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7년만에 연 매출 300억 이상 성장 "동종업계 노하우 공유·상생할 것"

화진산업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한지 7년 만에 연 매출 300억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회사다.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자리를 잡은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 꼽힌다.

화진산업은 전남 장성군 나노산단에 위치해 있다. 서울에서 약 4시간 거리, 기계의 열기가 가득한 산업단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정문에는 '한국바이오산업 패키징 협회'라는 안내문이 화진산업임을 알렸다. 안내문은 친환경 원료를 통해 생분해가 가능한 패키징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부여되는 것으로, 화진산업은 사탕수수를 베이스로 한 친환경 포장용 랩을 생산하며 성장해왔다.

화진산업은 2016년부터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을 받아왔다. '생산관리시스템(MES)'과 사물인



화진산업 입구.

/백지연 기자

터넷(IoT) 기반 생산 공정 자동화 등으로 공정을 효율화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는 삼성전자로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판로 개척 ▲신기술 접목 ▲인력양성 등으로, 화진산업은 삼성전자로부터 기기 재배치를 통한 공간 효율 제고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인력 확충 등을 지원 받았다.



화진산업 직원들이 마스크 포장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화진산업

보건용마스크 사업도 삼성전자 지원을 통해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었다. 2017년 처음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대비해 생산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였다. 올 초부터 마스크 필터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렵게 구축한 공장을 멈춰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 반면 수요는 급증하면서 내부 위기감도 높아졌다.

삼성전자의 지원은 위기에서 빛을 발했다. 삼성전자가 도레이첨단소재로부터 필터를 공급해주면서 화진산업도 비로소 생산을 재개할 수 있었다.

공정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마스크 생산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았을뿐 아니라, 직접 마도되기 쉬운 금형 등 부품까지 제작해줬다. 이에 따라 화진산업은 설비당 2명이었던 인력을 5명으로 조정했으며, 하루 4만개에 불과했던 마스크 생산

량을 10만개로 대폭 늘리며 연 매출을 300억원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화진산업은 이같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초기 생산분인 마스크 100만개를 '노마진'으로 공급한 것이다.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는 삼성전자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스스로도 노하우를 비호한 처지의 중소기업과 공유하며 상생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화진산업의 목표는 단순한 국내 시장 활성화가 아니다. 화진산업이 보는 경쟁자는 다른 마스크 제조사가 아닌 전세계 방역 업체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역 제품을 개발해 전세계에 진출하며 'K-방역'을 알리겠다는 포부다.

화진산업 이현철 대표는 "해외에서 K 방역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간다. 모든 부품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렇기에 국내 마스크 동종업계들은 경쟁업체가 아니다"라며 "높은 눈높이에서 삼성전자에 배운 노하우를 동종업계에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남)=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사람 감정까지 표현하는 'AI 가상인간' 등장

증강현실 기술 결합 3D 캐릭터 등장 가상인물 형태로 어색하지 않게 대화

인공지능(AI) 가상인간의 형태로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거나, 증강현실(AR) 기술이 결합한 3D 캐릭터가 등장해 사람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아바타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데커드에이아이피는 캐릭터를 제작해 영상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아바타 앱을 최근 오픈한 데 이어 AI 가상인간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솔트룩스도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아이 2명의 AI 아바타를 개발해 미국 대통령 등 다양한 AI 가상인간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또 한빛소프트는 AR 기술이 결합해 3D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AR 대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3D 아바타 서비스는 어린 아이, 대학생, 선생님 등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감



LG유플러스가 솔트룩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2명의 AI 아이 아바타.

/LG유플러스

정을 표현하는 서비스부터 최근에는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가상인물 형태로 등장해 사람과 감정을 표현하며 어색하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개최된 가상공간 게임쇼인 '2020 인디크래프트'에서는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세계를 돌아다니며 보이스, 텍스트 채팅 등을 할 수 있는 3D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시회에서도 3D, AI 아바타 활

용이 확대되고 있다.

데커드에이아이피는 지난 6월 말 텍스트를 입력하면 감정을 분석해 아바타가 이에 맞는 표정을 짓는 '모저' 앱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아이, 병아리, 곰돌이 등 3종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 후 텍스트를 입력하면 아바타가 내용을 보고 그에 맞는 감정을 표현해준다. '짱이야'라고 입력하면 손가락을 내밀고, '눈물이 난다'고 입력하면 캐릭터가 눈물을 흘린다. 목소리 기능을 켜면 텍스트에 입력한 내용을 직접 말로 해준다.

솔트룩스는 AI 디지털 휴먼인 '평양 친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에 이어 최근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5세 아이를 모델로 2명의 AI 아바타를 탄생시켰다. 이는 5세 아이를 3D 모델링 기술로 복제하고 AI 음성합성 기술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SK텔레콤, 외국인 맞춤형 선납서비스 '미리'

최대 500만원까지 충전 가능

SK텔레콤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한 통신 서비스 '미리(MIRI)'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미리'는 월 정액 요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불 서비스와 선택약정할인, 공시지원금, 멤버십할인 등 통신 혜택을 제공하는 후불 서비스의 장점을 모은 '선납' 서비스다. 미리 충전해 둔 금액을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 등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납 방식에 익숙하다. 또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이 각각 색이라 후불 중심의 한국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 거주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인은 약 22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SK텔레콤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한국인과 동등한 통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통신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리'는 1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충전해두고 통신요금, 단말 할부금,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도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이용 기한없이 충전된 금액을 계속 쓰다가 SK텔레콤 서비스를 해지할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일자리 확보 넘어 임금 인상 요구까지

>> 1면 "회사 위기? 난 몰라"서 계속

이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최근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했던 노사간 화합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넘어 임금 인상까지 확보하기 위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노조의 요구를 따른다면 기본급 인상에 따른 고정비 부담은 물론, 수익의 대부분을 성과급과 노동강도 완화 투자금, 사회공헌비용 등에 고스란히 사용되면서 미래 투자는

힘들어진다. 급변하는 자동차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미 지난 7월 22일 상견례에 이어 23일 2차 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상태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에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400%에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평균 220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일부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TC수당을 500%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했다. 지난

2018년 유동성 위기 당시 축소했던 각종 복리후생의 복원도 요구사항에 넣었다. 한국지엠의 경우 2년 전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으며 위기를 넘긴 상태다. 르노삼성 노조 역시 올해 기본급 7만 1687만원 인상, XM3 론칭 격려금을 포함해 700만원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 중이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계 노조를 바라보는 사회적 여론은 싸늘하다. 회사 미래보다 지금 당장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겠다는 노조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일반 소비자들도 국내 브랜드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지속가능경영 성과 등 공개

LG전자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을 소개한다. LG전자는 2일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LG전자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성과, 진척 현황, 향후 계획 등을 공개해왔다. 이번에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비롯해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LG전자 대표이사 CEO 권봉석 사장은 'CEO 메시지'에서 "디지털 전환 중심의 성장과 변화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은 LG전자가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이라며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촉진, '탄소 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 '더 나은 사회 구현'이라는 3대 지속가능경영 지향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이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 핵심이다. 올해 초 열린 CES 2020에서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소개하며 ▲1단계 효율화 ▲2단계 개인화 ▲3단계 추론 ▲4단계 탐구로 나눠 각 단계를 정의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체리 봉봉
에이드
5.9

체리 듬뿍 라떼
6.5

아임파인
체리 스노우
6.5

Cheer UP

FRESH를 마시다

Cherry UP



체리 풍당 스노우
6.5

체리 듬뿍 새콤 브레드 8.5

● 생체리 '씨' 주의하세요.

볼보의 안전 철학 담은 '인텔리세이프', 온가족 지키다

자율주행백서

볼보 XC90

방송인 박지윤씨 역주행 사고 화제
충돌 회피 시스템으로 피해 적어
파일럿 어시스트 편리한 조작 장점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볼보자동차 관계자 말이다. 자율주행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사람이 운전하도록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볼보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볼보는 일찌감치 '파일럿 어시스트'라는 이름으로 2단계 수준 자율주행 기능을 전 모델에 기본 탑재해왔다.

최근 출시한 XC9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로 파일럿 어시스트 수준을 시험해왔다. 이미 여러 사고 사례로 안전 성능은 증명된 상황. 파일럿 어시스트는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볼보 XC90은 안전과 편의, 럭셔리까지 잡은 최고 인기 대형 SUV다. /볼보

볼보 파일럿 어시스트는 조작부터 편리하다. 스티어링 휠 왼쪽 버튼을 전용으로 만들어 기능을 켜고 끄거나 거리를 조절하는 등 조작을 한두번 클릭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왼쪽 버튼은 파일럿 어시스트, 오른쪽 버튼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시작하고, 위 아래 버튼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바로 오른쪽에는 앞차와 거리 간격을 조절하는 상하 버튼이 있다.

앞 차와 간격은 설정한 대로 일정 수

준을 잘 유지했다.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전방에 정체 구간을 만날 때도 무리없이 부드럽게 제동을 걸어줬다. 긴급제동 기능인 시티 세이프티 기능은 차량 뿐 아니라 자전거나 큰 동물도 인식해서 급제동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스티어링 휠은 차선 중심을 잡기 위해 5~10도 가량을 스스로 움직여준다. 운전이 다소 서툴더라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대체로 왼쪽 차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차선이 없어지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스티



파일럿 어시스트를 작동한 모습. 차선을 인식하면 스티어링 휠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바뀐다. /김재용기자



볼보 XC90 스티어링 휠 왼쪽 버튼. /김재용기자

어링 조작 경보가 수초만에 울리는 탓에 손을 놓지 않도록 꾸준히 경고한다.

위험 경고 시스템은 예민하다. 앞차와 간격이 줄어들거나, 주차시 주변에 사물이 감지되면 긴급하게 알람을 울려

준다. 다만 예전 모델보다는 정도를 완화한 덕분에 알람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차시에는 360도 카메라와 레이더 4개가 힘을 쓴다. 주행중 예민한 반응과는 달리, 주차 중에는 다소 여유롭게 알람을 울린다. 평행 주차 상황에서는 '주차공간에서 나오기' 기능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차량에 탑승하면 활성화 여부를 물어보고, 실행하면 탈출을 돕는다. S60 등 일부 모델에는 자동주차시스템(PAP)으로 직각 주차가 평행주차 스티어링 휠 조작을 직접 해준다.

그 밖에도 충돌 회피 보조장치가 있다. 전방에 긴급 상황에서 차량을 멈추기 어려운 경우 직접 큰 폭으로 조향을 해 회피를 돕는 기능이다. 최근 화제가 됐던 방송인 박지윤 씨 가족 충돌 사고에서도 이 기능이 작동되면서 충격을 완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지능형 안전 시스템은 '인텔리 세이프'라는 이름으로 총칭된다. 전면 상단에 있는 모듈과 차량 곳곳에 달린 센서로 차선과 사물 등을 인식해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삼성SDS-NHN, 디지털 전환 사업 '동맹'

클라우드, 보안 협력 등 협약

삼성SDS와 NHN이 신규 사업기회 발굴과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사업협력을 강화한다.

양사는 지난달 31일 클라우드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분야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협력협약(BC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클라우드 기술

을 활용해 ▲NHN 클라우드 기반 삼성SDS 데이터분석과 보안솔루션 제공 ▲NHN 간편결제에 삼성SDS 블록체인 적용 사업 협력 등을 진행한다.

지난 5월 클라우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는 양사는 디지털 신기술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사는 정기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번 협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꾸준히

발굴하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HN 이준호 회장은 "삼성SDS와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삼성SDS 흥원표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두 회사의 강점을 잘 결합하여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지난 7월31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성과발표회에서 KT AI/빅데이터서비스담당 변형균 상무가 발표하고 있다. /KT

KT, 코로나 예측 얼라이언스 성과 공유

1기 활동 종료... 방역체계에 활용

KT는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1기 활동을 종료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코로나19 방역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는 지난 3월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이와 함께 ▲서울대 ▲건국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양대-국가수리과학연구소(수리연)가 참여했다.

KT는 자사의 유동인구·로밍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리 모델링 등의 기술을 통해 참여 기관들과 코로나 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내 확산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얼라이언스에서 진행한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는 '감염병 해외유입 위험도 예측'과 '국내 확산지역 예측' 등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우선 해외에서 감염병 발생 시 국내 유입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KT AI·

빅데이터 서비스담당은 기계 독해 기술로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뉴스기사에서 추출한 해외 감염병의 국내유입 예측했다. 아울러 카이스트 안인성 실장팀은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예측', 서울대 황승수 교수팀은 '서울시의 코로나19 미확인 해외유입 환자수 추정', 한양대-수리연의 손우식 박사는 '코로나19 19국의 감염자 입국 예측'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또 감염병의 국내 확산지역 예측을 위해 건국대 정은옥 교수팀의 '정부의 비약물적 중재정책에 따른 감염재생산지수 및 유동인구 변화 분석', 카이스트 박주용 교수팀의 '코로나19 전파 경로 네트워크 분석' 등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KT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나온 연구 성과를 코로나19 방역체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연구 얼라이언스 1기 운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연구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2기'를 출범할 계획이다.

KT AI·빅데이터 사업본부장 김재희 상무는 "이번 확산예측 연구 얼라이언스 1기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K 방역 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 기자

라이엇게임즈

롤드컵 내달 25일 개막

코로나 고려해 中 상하이서만 진행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 게임즈는 '2020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을 중국 상하이에서 내달 25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롤드컵은 한국을 포함한 12개 지역별 리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팀들이 모여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지난 2019 롤드컵 결승전의 경우,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4400만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0 롤드컵은 9월 25일에 개막해 10월 31일에 결승전을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 롤드컵의 테마는 '쟁취하라'다. 결승전은 9월 말 안공 예정인 '푸동 축구 경기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선수와 팬을 포함한 모든 대회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롤드컵은 상하이 한 곳에서만 진행된다. 보건 기관 및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 기자

"내년 해외로밍 미리 신청하고 할인 받자"

LGU+ 로밍상품권 선판매

해외로밍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고 요금제 가입 시 최대 15% 할인과 무료 여행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이 시작된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해외로 출국할 예정인 고객이 할인된 가격에 해외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안심로밍' 프로모션을 8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에 나가지 못했던 고객들이 연말 또는 내년에 해외로 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해외로밍 상품권을 선판매한다. 최근 항공업계 등에서 판매중인 '선불 항공권'과 같이 해외에 나가기 전에 고객이 미리 로밍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안심로밍' 상품권은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제공된다. 모든 해외로밍 요금제를 가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안심로밍 33' '안심로밍 55' 등 2종이며, 각각 10%와 15% 할인된 가격



인천공항 제2터미널 LG유플러스 로밍센터에서 U+안심로밍 프로모션에 대해 소개받고 있다.

에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구입한 뒤 해외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받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용기한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8월 한 달간 U+모바일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U+안심로밍' 이벤트를 통해 150명에게 선물을 지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퀴즈를 풀고 고객 150명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김민 기자 silkni@

SK팜 나비효과? 공모주 “앗 뜨거워”... 수천대 1 경쟁률

예비상장사 78%, 최상단이상 공모가 제눌루션, 공모가보다 150.71% 올라 상장 앞둔 기업들, 몸값 책정 고심

공모주 청약이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달 공모가를 확정해 상장을 마무리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공모가 대비 평균 주가상승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새내기주에 향하고 있는 이유다.

높은 수익률과 투자 수요가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금융투자회사와 상장을 앞둔 기업이 공모주에 쏠린 투자심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 공모주 전성시대...예비 상장사 기대 고조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마친 예비 상장사(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14곳 중 78%인 11곳이 희망가격 범위(밴드) 최상단 이상의 금액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가격을 제시한 건수 대부분이 밴드

(최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마친 예비 상장사 10곳(2일 기준))

기업명	확정공모가	희망공모가	현 주가	청약 경쟁률
솔트룩스	2만5000	2만4000~3만	2만8950	953.53:1
제눌루션	1만4000	1만2000~1만4000	3만5100	894.67:1
더네이처홀딩스	4만6000	4만5000~5만	4만3800	151.9:1
엠투아이	1만5600	1만5600~1만8900	1만5750	176.83:1
와이팜	1만1000	9700~1만1000	1만8800	712.13:1
이앤디	1만4400	1만2350~1만4400	2만	808.62:1
제이알글로벌리츠	5000	5000	상장예정	0.23:1
이루다	9000	7500~9000	상장예정	3039.55:1
한국파마	9000	6500~8500	상장예정	2036:1
영림원소프트랩	1만1500	9500~1만1500	상장예정	진행예정

/단위: 원

상단 이상에 몰리며 최종 공모가가 밴드를 넘어선 기업만 2곳(한국파마·티에스아이)이다.

14곳 중 현재 상장을 마친 곳은 총 9곳. 이 가운데 이시스밸류리츠와 더네이처홀딩스를 제외한 7곳이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넘어섰다. 9곳의 평균 상승률은 43.98%에 달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기업인 제눌루션의 경우 전 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 공모가(1만4000원)보다 150.71% 오

른 3만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눌루션은 일반인 대상 청약에서 8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제눌루션의 뒤를 이어 공모가 대비 87.03% 상승한 에이프로 역시 일반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582대 1을 기록한 경쟁률이 흥행의 예고편이었음을 증명했다.

공모주를 향한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한 주간 역대 1·2위 일반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모두 썰졌다.

의료기기 업체 이루다가 지난달 28일 3039대 1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더니 전문의약품 제조기업 한국파마가 이를 만에 2035대 1로 뒤를 이었다. 두 기업 모두 이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2018년 5월 현대사료(1690대1)와 이달 초 진행된 2차전지 시스템 기업 티에스아이(1621대 1)를 크게 웃돈다.

시장에선 SK바이오팜의 흥행이 불러온 나비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공모 시장 유동성 장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SK바이오팜 청약증거금 31조원 중 환불된 30조원 일부가 공모 청약 투자로 다시 유입됐고, 기업들도 하반기 상장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공모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기업설명회(IR) 컨설팅업체 관계자도 “지금도 상장 최고의 적기”라고 평가하며 “SK바이오팜을 통해 청약 방식에 요령이 생긴 데다 공모주 수익률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 선택과 집중, 공모가 ‘바겐세일’ 전략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몸값 책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새

내기주의 선전 이유로 동종기업의 주가 수익비율(PE)보다 낮은 공모 밴드가 지목되면서다. 가격 경쟁력이 청약 흥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결국 기업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를 포기한 기업도 생겨났다. 저가 매력을 부각해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다.

최근 IPO를 끝낸 예비 상장사 대표는 “대표주관사 측에서 계속 공모가를 저렴하게 책정하자고 설득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처음엔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상장 이후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고민 끝에 거기에 따르기로 했다”며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대신 청약에서 ‘대박 경쟁률’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평가를 이용해 수익률을 얻으려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모가를 낮게 책정해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쪽이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이다. 공모시장 경쟁률이 기업의 추후 성장 가능성의 대안 지표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대형 건설사 실적 ‘뚝’... 코로나 직격탄

(2분기)

삼성물산, 복귀했지만 영업이익 ↓
현대건설, 매출·영업이익 감소
대림산업,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대형 5개 건설사의 2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2019년 기준) 상위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2분기 실적은 매출 2조8420억원, 영업이익 1480억원으로 1분기 매출(2조6420억원)과 영업이익(1240억원)보다 올랐다. 삼성물산은 상반기 반포 3주주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5년 만에 정비사업에 명함을 내밀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8%, 영업이익은 6.3% 줄어들어 코로나19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 지연으로 줄었다”며 “다만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은 2분기 실적(연결 기준)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4조5442억원, 영업이익 1539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37.2% 감소했다. 반면 매출은 전기 대비 12% 증가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고한 국내 주택 실적과 현대오일뱅크 정유공장 개공사 등으로 상반기 매출이 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회계처리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영업이익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1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매출은 2조5477억원으로 3.2% 증가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건설사업부의 호실적 지속과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와 고려개발의 신규 연결 편입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했다. 매출은 2조54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3.5% 떨어졌지만 매출은 4.3% 늘었다.

GS건설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기조를 앞세워 양적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와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매출액 1조9632억원, 영업이익 812억원, 순이익 5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2% 줄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20%, 13% 감소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상반기에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했지만 하반기에는 주택건축부문 사업이 본격화되고 해외 사업장도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실적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코스피 강세에 주식형펀드 2.97% 상승

주간펀드동향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주식형 펀드가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2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주간(7월 24일~7월 30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2.97%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3.22% 수익을 올렸다.

설정액은 지난해에 이어 4833억원이 유출됐다. 액티브펀드에서 1535억원 감소했고,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는 3298억원 줄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1.17% 하락했다. 브라질(-6.01%), 일본(-

1.63%), 중국(-1.41%) 등이 하락했다. 섹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값이 계속 오르면서 소재섹터가 유일하게 2.93% 올랐다.

설정액은 498억원 소폭 늘었다. 중국펀드로 355억원의 자금이 들어왔고, 에너지, 소재, 금융, 소비재 등 대부분의 섹터펀드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해당 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종류C-e’(7.22%)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동남아 지역에 투자하는 ‘삼성아세안증권투자신탁 2[주식](C 3)’(6.16%)가 수위를 기록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

LH, 산업공학회와 스마트시티 활성화 협약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정보 교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한산업공학회와 협력체계 구축 및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스마트시티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맡고 있는 LH와 융·복합 기술 전문연구기관인 대한산업공학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시티 인프라·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정보 교류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육성을



지난달 3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왼쪽)과 문일경 대한산업공학회 회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H

위한 연구개발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산학협력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연우 기자

올레tv서 킹덤 본다... '진격의 넷플릭스'

오늘부터 KT IPTV서 서비스 넷플릭스, 韓 고객 850만명 확보 KT, 가입자 점유율 확대 등 기대 국내 OTT시장 외산 영향력 우려

KT가 자사 인터넷TV(IPTV)에서 '넷플릭스'를 서비스한다. 넷플릭스는 국내 유료방송 1위 사업자와 손잡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선두 사업자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3일부터 '올레tv' 가입자들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레 tv에서 넷플릭스 이용 시 가족이 하나의 이용권으로 함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라 최대 네 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이후 KT와의 추가 제휴를 통해 KT의 850만명 IPTV 가입자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가입자 45만여명이 늘고, IPTV 매출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52만8084명이던



KT 모델들이 올레 tv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넷플릭스의 월간 활성이용자(MAU)는 지난해 12월 387만660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에는 637만4010명을 기록, 1년 사이에 2.5배 성장했다.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KT 또한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가입자 점유율 확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현대HCN과 인수·합병(M&A)도 추진하며, 국내 유료방송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또한 KT와의 빠른 제휴를 통해 경쟁자인 국내 OTT 사업자와 국내 진출 예정인 글로벌 OTT 플

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견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넷플릭스 진출 이후 국내 OTT 시장은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다.

SK텔레콤과 국내 지상파 3사가 연합해 '웨이브'를 출시해 콘텐츠 투자 등에 나서고 있고, CJ ENM과 JTBC가 합작한 '티빙', KT의 '시즌' 등도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넷플릭스 대항마로 꼽히는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시장 진출 또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콘텐츠는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휴는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 선두를 지키고

국내 OTT의 콘텐츠 공급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특히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진출하기 전에 먼저 방어하고 자리를 잡기 위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에는 KT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는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그간 넷플릭스와의 협상서 "망 이용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20대 국회에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외 CP들 또한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도 했다.

넷플릭스와 제휴하지 않은 SK브로드밴드의 향후 또한 관심이 쏠린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소송전이 마무리 돼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날이 갈수록 커지는 해외 OTT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한양대 '건강한 연구실' 선정

한양대는 최지웅 해양융합공학과 교수의 해양융합공학 연구실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건강한 연구실'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건강한 연구실'은 젊은 과학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정책이다. 연구실 문화와 성과가 우수한 연구실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과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연구실은 장관상과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현진 기자

연세대-브레인OS연구소

스마트시티·미래교육 맞손

연세대 스마트시티 융합서비스 연구개발단은 지난달 30일 브레인OS연구소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 개인의 뇌성향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각 개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KAIST

국제핵비확산학회 개최

KAIST는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공동으로 4일~6일까지 3일간 '제7회 국제핵비확산학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학회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축사를 전하고, 브렌트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차관보가 연사로 참여한다.

학회에서는 ▲2020년 핵비확산동향 평가 ▲동북아 평화와 북한의 비확산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홍수 기자 hys@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30일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우선협상대상자로 아리올태양광발전 컨소시엄(대표사 주식회사 한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리올태양광발전 컨소시엄은 대표사 ㈜한양을 비롯해 한국서부발전(주) 등 총 5개사로 구성됐다.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생명용지 내 저류지에 사업자 시행계획서에 따라 최종 수상태양광 73MW급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한홍수 기자

동국대

중강당 좌석기부 캠페인

동국대 중강당의 433개 좌석마다 동문 이름과 그들의 '사연'이 새겨진다. 동국대는 동문들의 학창시절 추억 속 한 칸을 자리잡고 있는 중강당에 '좌석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강당 좌석기부' 캠페인은 본관 중강당 433석의 좌석에 일정액의 후원과 함께 본인의 이야기와 이름을 새기는 캠페인이다. /한홍수 기자

사립대 30% 등록금 반환 확정... 1인당 평균 10만원

사총협 4년제 153곳 조사 반환 재원론 주로 특별장학금 14개 대학은 2학기 등록금 감면 67곳 '검토중' 23곳 '계획없어'

4년제 사립대 3곳 가운데 1곳은 1학기에 재학생들에게 생활비 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특별장학금 혹은 생활비를 전체 재학생에게 지급한 대학은 18곳이었다. 앞으로 지급할 예정인 대학도 32곳이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4일 153곳 사립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53곳 중 104곳이 응답했다.

지급 금액은 10만원이 가장 많았다. 18곳 가운데 11곳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3곳이 20만원 ▲1곳은 15만원 ▲1곳은 5만원을 지급했다. 2곳은 지급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특별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반환 재원론으로는 교내 장학금이 가장 많이 쓰였다. 153곳 가운데 과반수인 79개교(51.6%)가 재원 마련 방법(복수응답)으로 교내 장학금을 꼽았다. 이어 ▲60곳(39.2%)은 교비·등록금 일부 ▲47곳(30.7%)은 교직원·동문 기금 ▲43곳(28.1%)은 정부지원금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대학 40개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



지난 1학기는 코로나19로 대학 수업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셌다. /뉴시스

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지는 못했지만, 형편이 좋지 않은 일부 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 곳도 7곳이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 지급을 확정된 50개 대학을 합하면, 코로나19 관련 해 어떤 형식이든 지원하는 대학은 총 97곳에 달하는 셈이다.

2학기 등록금 반환 계획을 확정했거나 학생들과 협의 중인 사립대는 81곳(52.8%)이었다. 감면 계획이 확정된 대학은 아직 14곳(9.1%)에 그쳤지만, 검토 중인 대학은 67곳(43.7%)으로 추후 등록금 반환을 확정하는 대학이 대폭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23개교(15%)는 감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 계획을 내놓지 않던 대학들도 속속 반환 결정을 하고

있어 반환 확정 대학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3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1000억원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 노력한 대학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누적적립금 상위 대학도 이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며 등록금 반환 대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인철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적립금 상위 10위 안에 드는 대학 중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한 곳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2주 전 10개 대학 총장이 만나는 모임에서 학생, 학부모의 재정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등록금 환원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별재난 장학금을 지정하기로 했다"라면서 "등록금의 5%~10% 정도로 기준을 정해 자율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10개 대학 모임'은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누적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상위 20개 대학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재난 장학금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10개 대학 또한 누적적립금 상위 20위 이내 대학일 가능성이 크다.

김인철 회장은 "특별기금(적립금)이 과도한 대학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고, 각 대학에 특별기금 적립 규모와 비례해 특별장학금 규모를 증액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적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은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등이다.

/이현진 기자 ihj@

K-일러스트레이션
K-ILLUSTRATION
FAIR SEOUL **페어서울**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 2020

감성프로젝트

잠 꿈 그리고 낮과 밤

2020. 8. 21(금) - 23(일)

서울 코엑스 D홀 / COEX, Seoul





신한은행, IB+PB 신한PWM PIB 센터 2호점 오픈
 신한은행은 고자산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신사업모델인 PIB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한PWM PIB센터 2호점을 개점했다. PIB란 PB(Private Banking)와 IB(Investment Banking)가 결합된 용어다.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와 기업금융, IB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모델이다. 신한은행 신연식 기업그룹장(왼쪽에서 두번째), 정운진 GIB그룹장(세번째), 왕미화 WM그룹장(왼쪽 다섯번째), 배두원 IPS그룹장(여섯번째), 신한금융투자 김종욱 부사장(왼쪽 첫번째)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NH, 제1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N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더스마티움에서 '제1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27일부터 6월12일까지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제품 서비스 개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3건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공공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8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장충모 LH경영혁신본부장(뒷줄 왼쪽 여섯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기보, 케이뱅크와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맞손
 기술보증기금이 케이뱅크와 '디지털·비대면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전문기관 기보와 최근 다양한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면서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케이뱅크가 기업대출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왼쪽부터)정윤모 기보 이사장과 이문한 케이뱅크 은행장이 지난달 31일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하이트진로, 물놀이 사고 예방 국민안전캠페인 전개
 하이트진로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소방본부와 함께 국민안전캠페인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구명조끼, 레스큐 튜브, 레쉬가드 등 총 1000개 물품을 충남, 부산, 강원도 소방본부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충남 보령시 대천수욕장 119해변구조대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에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와 충남소방본부 순정호 본부장, 방상천 보령소방서 서장, 시민수상 구조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순천향대 1학기 등록금 10% '특별장학금'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달 31일 오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실납입 수업료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수혜 대상은 약 8000여명의 재학생이 해당되며 개인별 10%로써 전체 장학금액은 약 25억 2000여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향대는 지난 1학기 등록한 재학생을 기준으로 계열별로는 최대 약 34~50만원선의 금액을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lhj@

1인 회사 주총결의에 관한 법리와 적용



김다연 변호사의
 진정한 회사법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가? 회사의 지분 전체가 한 사람의 사원이나 주주에 의해 소유되면, 이를 1인 회사라고 한다.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법상 규정은 1인 회사에 곧바로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에는 적용돼야 할 필요가 낮을 수 있

다. 이에 판례는 1인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없다.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해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 없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위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 그 주주총회가 상법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위 주주총회는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로서 그 결의는 주주총회결의로

서 유효하다는 법리를 1인 회사에도 적용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1인 회사의 법리는 반드시 1인 회사에만 적용된다. 판례는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 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해 그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거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법무법인바른

ILO 협약을 씹어먹는 軍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군사적활동 시간도 부족한데, 무턱대고 대민지원을 내 보낼 수도 없고, 언론홍보로 장병들의 희생을 통친다는 것도 '개발도상국적 발상'이다.

최근들어, 전역을 미뤘던 전역 전 휴가 등을 반납하고 훈련과 경계작전에 자진해 투입했다는 미담기사도 많이 보인다. 헌신을 해준 장병들이 너무나 고맙다, 그렇지만 군 당국과 정부에는 '분노'가 끓어 오른다. 장병의 헌신이나 오기 전에 군 당국과 정부는 원활한 인원충원과 임무보장여건을 제공해 줘야 하는 것이 먼저다. 입으로 공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직업군인의 노동가치도 무시해선 안 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군 시간의 근무수당 삭감'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군의 경우 출항이후 함상 생활은 사실상 24시간이 복무시간이다. 수주 수개월을 망망대해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해야하는데, 현재도 충분치 않은 시간의 수당을 월 68시간에서 38시간(지상근무자는 28시간)으로 줄인다고 한다.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면서도 군 당국과 정부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콩나물값 깎고 밥대신 라면먹으며 명

품을 사겠다는 철부지와 뭐가 다른가. ILO협약을 씹어먹겠다는 것인가.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가치도 명확하지 않고, 현재도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기지 등의 인프라는 갈아뭇개고 도입하는 무기가 제대로 운영될까. 무기도 사람이 움직이고 송고한 군인들의 노동력이 투입돼야 한다.

짜퉁 중급제 보급품, 군사적 가치보다 무리한 국산화 이런 폐해는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더 많은 시민을 구하고 한치의 영토를 더 지키겠다고 귀한 노동력을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언제까지 가혹한 '공노비'를 강요할 것인가. ILO 100·101호 협약의 균등노동에도 위반되지 않나.

윗선에 계신 높은 군인들을 제외하고, 야전의 군초들은 자신들의 부당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 타 직종과 달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없는 직종이다. 정부가 앞으로 비준을 해야하는 ILO 협약 중 151호는 기밀업무(국정원 등) 등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공노동자임을 이유로 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를 우리 안보상황에 맞게 조정해 비준하더라도 정부는 군초들의 노동가치를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captin@metroseoul.co.kr

인사

-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임용 △ 기획운영이사 허대만
- ◆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서효원 ◇ 과장급 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과장 이상규 ◇ 과장급 전보 △ 대전인성제출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스마트팜개발과장 강금춘

- ◆ 교육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최성부 ◇ 부이사관 지원 근무해제 △ 홍보담당관 임용빈 ◇ 서기관 파견복귀 △ 고등교육정책실 하진혜

부음

- ▲ 김연학(청주순복음교회 장로)씨 별세, 김미화·김현수(충북고 총동문회장·영광식품 대표이사)·김영숙·김동수(트리엠대표이사)씨 부친상 = 2일 낮 12시47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 특1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043-269-7211
- ▲ 김종록씨 별세, 구자민(종근당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 담당 상무)씨 장인상 = 1일, 고양명지병원 장례식장 특9호, 발인 3일 오전 10시 30분. 031-810-5444
- ▲ 조영숙씨 별세, 강남선씨 부인상, 강준환 한국경제신문 인천취재부장·강윤화·강문호(태양금속 품질경영팀장)씨 모친상 = 1일 오후 5시 55분, 인화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10시30분. 032-890-3192

코로나가 바꾼 바캉스 패션 트렌드

호캉스 인기로 '파자마룩' 뜬다

휴가철 호캉스 예약률 급증
홈웨어·파자마 덩달아 불티
자주, 전년보다 511% 신장
BYC, 기능성 홈웨어 각광



엘라코닉 파자마 /신세계백화점

여름철 휴가 풍경이 달라졌다. 해외 여행족들이 국내로 눈을 돌리는가 하면, 도심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실제로 서울신라호텔의 경우 7~8월의 예약률이 6월에 비해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치웨어' 대신 '홈웨어'와 '파자마'가 휴가철 드레스 코드로 떠올랐다. 해외 휴양지에서 즐겨 입는 비치웨어 대신 호텔에서 뒹굴거리며 입을 수 있는 파자마를 구입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

신세계백화점의 라제리 중심 편집매장 '엘라코닉'에서 판매하는 파자마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더 잘 팔렸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다양한 신상품도 파자마룩 열풍에 한몫하고 있다.

이달 오픈 3주년을 맞은 엘라코닉은 오는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세일을 통해 파자마를 포함해 속옷과 이지웨어 등을 선보인다. 올해 봄·여름 상품을 구매할 경우 40~50% 할인이 적용되며, 구매 금액별 사은품도 증정한다.

엘라코닉 PB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코튼 아일랜드 크롭탑·팬츠'는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 슬리브리스 탑과 와이드 팬츠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들을 위한 제품도 있다. 여성용인 '레드 스트라이프 코튼 드레스'와 커플로 입을 수 있는 '레드 스트라이프 코튼 남자 쇼츠'는 시어셔커 소재로 시원하다.

신세계인테리어내셔널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에서도 홈웨어와 파자마라인이 각광받고 있다. 남녀공용 '365 파자마'는 출시 2개월 만에 판매율이 80%에 달하고 일부 제품은 완판됐다. 10부 기장부터 반팔, 4부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선택의 폭을 다양화했으며 화사한 색깔과 실용적인 소재로 제작했다.

자주가 이달 29일 처음 진행한 네이버 셀렉티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365파자마는 판매율 1위를 차지했으며, 상하의 세트 제품들 일부는 방송 시작 후 30분만에 품절됐다. 올해 상반기 자주 파자마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511% 신장할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BYC도 기능성 홈웨어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대표상품으로는 편안함을 극대화해줄 홈웨어 보디드라이 '아린쿨웨어'가 있다.

아린쿨웨어는 피부와 접촉 시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접촉감각 기능에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속건성 기능이 뛰어나다. 냉감원사를 특수 제작하여 피부와 닿는 면적을 최소화했으며 통기성이 좋고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항상 쾌적한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다. 다양한 데일리룩을 연출할 수 있으며, 편안한 홈웨어로도 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런던·밀라노 '툼딕슨 카페', 韓 첫 상륙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 국내 1호점
매장내 집기 톼딕슨이 직접 디자인



툼딕슨 카페 더 마티니 전경.

현대백화점이 압구정본점에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 '툼딕슨'이 직접 디자인한 카페를 국내 처음으로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본점 4층에 국내 최초로 '툼딕슨, 카페 더 마티니'를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톼딕슨은 영국을 대표하는 산업 디자이너로, 세계 3대 디자인 박람회 중 하나인 프랑스 '메종앤오브제'에 특별 디자이너로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철제 뼈대 위에 왕골을 감아 만든 'S 체어', 청동 구리로 디자인한 둥근 조명인 '미러볼'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툼딕슨, 카페 더 마티니'는 현재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홍콩 등 5개국에 10여 개 매장이 있으며, 아시아에선 홍콩에 이어 이번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이 두 번째 매장이다.

압구정본점에 문을 연 '툼딕슨, 카페 더 마티니'는 총 90㎡(약 27평) 규모로,

매장 내 의자·테이블·조명·식기 등의 집기는 모두 톼딕슨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들로 채웠다. 카페에선 티·커피·디저트 등 식음료(F&B)는 물론, 톼딕슨이 직접 디자인한 조명과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을 판매한다.

'툼딕슨, 카페 더 마티니'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 국내 1호 매장을 열기로 한 것은 명품 백화점으로서의 압구정본점 위상과 무관치 않다. 압구정본점은 명품은 물론 식품까지 국내 최

고 수준의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데다, 단위 면적당 매출도 국내 백화점 가운데 가장 높다.

여기에 해외 여행이나 해외 거주 경험이 많아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툼딕슨, 카페 더 마티니' 입점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부터 압구정본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매장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11번가, 경력개발자 100여 명 대규모 공채

커머스 포털 11번가가 대규모 경력 개발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11번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말까지 100여 명의 개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프론트엔드(Front-end), 백엔드(Back-end), 앱(App) 개발, 데

이타베이스(DB) 개발, 인프라 등 개발 전 영역에 걸쳐 모집한다.

상세 채용 분야는 11번가 채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링크드인, 블라인드, 로켓펀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서는

8월 13일까지 11번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접수 후 온라인 코딩테스트,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11번가는 이번 공개 채용을 위해 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11번가의 개발문화 소개와 각 채용 분야에 대해 개발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 '3000원대 루테인' 한정판매

이마트가 온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국민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국민건강 프로젝트'는 온 국민이 매일 부담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수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협업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건강식품을 선보이는 캠페인이다.

이마트는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상품들을 비롯해, 계절적·사회적 요인을 반영한 트렌디한 건강 관련 상품을 '국민건강 프로젝트' 상품으로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국민건강 프로젝트 1차 상품으로 '국민 루테인(500mgX30캡슐·사진)'을 선보이고, 출시 기념으로 '국민 루테인' 2만5000개 한정수량을 '리미티드딜'로 정사가 대비 50% 할인한 3900원에 판매한다.



'리미티드딜'로 구매시 매일 130원으로 눈 건강을 챙기는 것이며, 행사 종료

후에는 정사가 7800원에 판매한다.

루테인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이다. '국민 루테인'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기업인 코스맥스엔비티에서 생산하며, 캡슐 1개(500mg)당 루테인 1일 섭취 최대함량 20mg을 담았다.

또한,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비타민E, 베타카로틴, 셀렌, 아연 등 8가지 기능성 성분까지 추가로 넣었다. /신원선 기자

홈플러스, 국내 첫 '올위스 와인' 선보여

전국 114곳서 15종 판매

홈플러스는 호주 최대 유통 기업 올위스 그룹과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올위스 와인' 15종을 전국 114개 주요 점포에서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올위스 그룹은 호주 전역에 걸쳐 약 1000개의 슈퍼마켓과 230여 개의 와인 전문 매장 '댄 머피', 1300여 개의 주류 전문 매장 'BWS'를 운영하는 유통 기업이다.

먼저 판매 점포에서 공통적으로 선보이는 '올위스 앰버튼 쉬라즈 카베르네 소비뇽(750ml, 9900원)'은 부드럽고 대중적인 맛이 특징이다. 올위스가 해당 와이너리를 인수하기 전 와인 메이커 이름인 '앰버튼'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며 해당 상품 고유의 맛을 강조



모델들이 2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올위스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했다. 또 ▲올위스 워터컬러 모스카토(750ml, 1만900원) ▲올위스 워터컬러 샴도네이(750ml, 1만900원) 등 상품은 화이트 와인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워터컬러 와이너리에서 만들어 달콤하고 청량한 맛을 극대화했다. /신원선 기자

“키보드계 명품 ‘마이크로 키보드’ 만나요”

롯데백, 잠실점 등 4곳서 판매

올 여름은 수영장 같은 물놀이 시설의 방문을 자제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내의 놀이 완구의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여름방학과 바캉스를 맞이해 놀이 완구의 수요에 맞춰 롯데백화점은 8월 3일부터 롯데백화점 4개 점포(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김포공항점)의 토박스 매장에서 키보드계의 명품 '마이크로 키보드'를 선보인다

마이크로 키보드는 정교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세계 8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위스 키보드 브랜드다. 가벼운 무게와 안정적인 주행감을 주는 특허 받은 기술력으로 일반 키보드의 5배가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키보드계의 명품'이라고 불리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8월 3일부터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김포공항점 총 4개 점포의 토박스(TO EBOX) 매장에 별도로 마이크로 키보드 판매 매장을 확보했다.

대표 상품으로 미니헨즈 디럭스 LE



롯데백화점 마이크로키보드 /롯데쇼핑

D(신장 110cm 이하, 허용중량 25kg 미만)는 15만 4000원, 맥시 T디럭스 L ED(신장 110cm 이상, 허용중량 60kg 미만)는 23만4000원에 판매한다.

아울러 키보드를 구매할 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운동화를 추가로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8월3일부터 28일까지 마이크로 키보드 구매 시 토박스 운동화를 함께 구매하면 운동화를 10%할인 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한동성 롯데백화점 상품기획자는 "안전에 대한 부모의 고민이 많은 만큼 안전성을 인정받은 '마이크로 키보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제약강국 건설’ 필생의 꿈... 신약개발의 거인 지다

임성기 한미약품회장 타계

48년간 韓제약 신약 개발 선도
매년 매출액 20%, R&D 투자
고인 뜻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거인(巨人) 한미약품그룹 임성기 회장(80세)이 2일 새벽 숙환으로 타계했다.

임 회장은 지난 48년간 한국 제약산업의 신약 개발을 이끌어온 거인이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매년 매출액의 20%를 신약 연구개발(R&D)에 쏟아부으며 한국형 연구개발 전략의 토대를 마련했다.

임 회장은 지난 1940년 경기도 김포



한미약품 故 임성기 회장

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후 1967년 서울 동대문에서 ‘임성기 약국’을 열었다. 이 약국은 6년 후인 1973년 한미약품을 창업하는 밑거름이

됐다.

임 회장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개량한 ‘제네릭’을 판매하며 성장의 발판을 다졌다.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개량신약인 ‘아모디핀’ ‘아모잘탄’을 선보이며 국내 제약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개량 신약들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로 성장해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의 연 매출액을 1조원으로 이끄는 일등공신이 됐다.

하지만 임 회장의 꿈은 언제나 ‘신약 개발’에 있었다. 그는 ‘한국형 R&D 전략을 통한 제약강국 건설’이라는 꿈을 품고 자체 개발한 개량신약을 판매한 수익을 신약개발에 쏟아붓는 사업구조를 구축했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1조113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연구개발에는 총 2098억원을 투자했다. 매출액의 19%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미약품은 매년 연구개발에 한해 벌어들인 돈의 20% 가까운 금액을 R&D에 쏟아붓고 있다.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흔들림이 없었다. 최근 10년간 한미약품이 R&D에 투자한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선다.

신약개발에 대한 임 회장의 의지는 지난 2015년, 신약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에 약 7억달러에 기술수출 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국내 제약사의 신약 수출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후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사와 9건에 달하는 기술수출 계약을 잇달아 맺었다. 이 중 일부가 반환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임 회장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독자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구축하고, 호중구 감소증 신약인 ‘톨론티스’와 경구용 항암신약 ‘오락솔’ 등 총 31개의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유족으로는 부인 송영숙씨와 아들 임종윤, 임종훈씨, 딸 임주현씨가 있다. 장례는 고인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른다. 빈소는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알릴 예정이며, 발인은 8월 6일 오전이다. 유족측은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SSG닷컴, ‘먼데이문’ 종합뷰티 플랫폼 육성

취급 브랜드 3000→6000개 확대
레이블씨 스토어 자사 최초 입점

SSG닷컴이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MONDAY MOON)’에 오프라인 뷰티 편집숍을 입점시킨다. SSG닷컴은 계속해서 단독 운영 브랜드를 늘리고 취급 상품군을 확대해 ‘먼데이 문’을 모든 뷰티 아이템을 만날 수 있는 종합 뷰티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SSG닷컴은 오는 3일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 안에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클린뷰티 편집숍 ‘레이블씨(Label.C)’ 공식스토어를 단독으로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레이블씨’ 공식스토어 입점은 자사몰을 제외한 전체 온라인몰 중 최초다.

‘레이블씨’는 세계 주요 클린뷰티 브랜드를 큐레이션해 소개하는 편집숍이다. ‘클린뷰티’란 자연 원료를 사용해 화학 성분을 최소화하는 등 제조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해 만든 상품을 말한다. 화장품 구매 시 동물실험 여부 등 제조 과정이나 구체적 성분에 대해 관심



SSG닷컴은 오는 3일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 안에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클린뷰티 편집숍 ‘레이블씨(Label.C)’ 공식스토어를 단독으로 오픈한다. /SSG닷컴

을 가지는 고객이 늘며 ‘클린뷰티’ 상품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현재 ‘레이블씨’는 컨테포러리 멀티숍 ‘비이커(Beaker)’에 입점해 백화점 및 플래그십 스토어 중심의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운영 중이다. ‘레이블씨’는 온라인 수요 공략 및 ‘클린뷰티’ 인지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뷰티 브랜드와 상품을 보유한 SSG닷컴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 입점을 결정했다.

SSG닷컴 역시 공식스토어를 통해

오프라인 편집숍 상품을 보유한 종합 뷰티 플랫폼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고 취향 소비를 고려해 신뢰도 높은 상품을 고객에게 맞춤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공식스토어에는 6개 브랜드 100여개 상품이 입점한다. 대표 브랜드로 프랑스와 미국에서 건너온 ‘르 프루니에(Le Prunier)’, ‘압솔루시옹(Absolution)’, ‘메종 루이 마리(Maison Louis Marie)’ 등이 있다.

명노현 SSG닷컴 트렌드담당은 “‘클린뷰티’를 시작으로 상품 상세 속성까지 고려한 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뷰티 브랜드와 상품을 총망라한 종합 뷰티 플랫폼으로 먼데이 문 경쟁력을 확보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SG닷컴은 지난 2월 뷰티 전문관 ‘먼데이 문’을 확대 개편해 오픈했다. 최근까지 취급 브랜드 수를 3000여개에서 6000여개로 늘리는 한편 상품 수도 10만 종에서 17만 종까지 구색을 확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왼쪽 세번째)과 장석일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장(왼쪽 네번째)이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화의료원, 서울 내 알레르기 질환관리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와 MOU

이화의료원은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이선영 전략기획본부장 및 장석일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회장, 조영주 사무총장, 박용민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알레르기 질환 관리

체계 구축 ▲ 체계적인 예방 관리 ▲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적정 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등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이대목동병원 본관 2층에 문을 연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 정보 센터’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을 목표로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알리는 한편 아나필락시스(알레르기성 쇼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유통단신

코트라, 온라인 통해 K-방역 우수성 전파

바이오 헬스 월드와이드 전시회 마련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전시

KOTRA(코트라)가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나선다.

코트라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세계적 전시 주최사인 인포마켓과 함께 ‘바이오 헬스 월드와이드 온라인 2020’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K-방역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서비스 등 국내·외 500개 기업과 바이오 1000개사가 참가한다. 코트라는 기업전시관, 콘퍼런스관, 화상상담관, 투자유치 전시관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동아제약 주성분 3배 여드름 치료제

동아제약은 고함량 여드름 치료제 ‘에크논 크림’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에크논 크림은 여드름, 뽀루지에 효능·효과가 있는 여드름 치료제다. 항염 효과와 여드름균의 지방분해효소 생성을 억제하는 이부프로펜피코놀과 항균 작용과 여드름균 증식을 억제하는 이소프로필메틸페놀이 주성분이다.

특히 이소프로필메틸페놀이 기존 여드름 치료제에 비해 함량이 약 3배 높다.

에크논 크림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여드름 치료제 ‘에크논 크림’ /동아제약

BGF리테일 벼추얼 815런 참가자 모집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가수 선, 프로스펙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2020 벼추얼 815 런’의 참가자를 이달 6일까지 모집한다.

벼추얼 런은 참가자가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거리를 완주하는 신개념 마라톤으로 전통 마라톤의 의미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도 동참할 수 있는 언택트 러닝이다.

‘2020 벼추얼 815 런’은 광복절과 언택트 러닝을 연계한 참여형 기부 챌린지로 8.15km를 뛰고 러닝 인증샷을 개인 SNS에 업로드한 참가자가 815명을 달성하면 BGF리테일, 프로스펙스 및 협력사가 각각 기부금 각 815만원을 네이버 해피빈에 기부하게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F 라움보야지 펭수와 함께 여행용품

LF의 여행 테마 액세서리 및 용품 편집숍 ‘라움보야지’가 EB S의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와의 2차 협업 여행용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펭수와 함께라면 평범한 일상도 여행이 된다’를 주제로 진행된 협업을 통해 여행은 물론, 일상 속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선보인다.

2차 협업 제품은 캐리어 커버, 목베개 안대 세트, 피크닉 매트, 노트북 파워치 총 4종으로 구성됐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기아차 “카니발 타고 아이들과 즐거움 찾아가요” 언택트로 사라지는 일자리

4세대 카니발 출시 기념 사회공헌 놀이공감키트 전달·놀이활동 진행

기아자동차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이색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기아차는 4세대 카니발 출시를 기념해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굿네이버스와 손잡고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기아차는 패밀리카라는 카니발의 이미지에 걸맞게 ‘대한민국 아동 행복 프로젝트-놀이공감 키트’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놀이 공간이 줄어든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에 나선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든든한 아빠차,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동차’라는 카니발의 이미지에 걸맞게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강원도와 전남 지역 아동 830명에게 잘함



기아차가 국가대표 패밀리카 ‘카니발’ 출시 기념 이색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

/기아자동차

놀이와 보드게임, 미니블록, 컬러링북 등으로 구성된 ‘놀이 공감 키트’를 포함해 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키보드와 드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진행한다.

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진행되는 ‘그린라이트 키즈’ 캠페인을 통해 저학년 대상 교통안전 키트를 전달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지 수첩

채 윤 정 (산업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최근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은 향후 5년간 58조원이 투입될 계획이어서, 인공지능(AI) 등 IT 기업들은 벌써부터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개최된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기자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데이터·5G(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는 물론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많은 신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하지만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 같은 기술에 대한 궁금증 대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그 대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일자리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비대면 기술을 주도하는 AI 및 로봇업체에서도 ‘언택트’ 현상으로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면 서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한편

으로는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한 AI 기업 대표는 “AI·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서 장년층 등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를 항상 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새 일자리가 필요한 데 데이터 가공 작업을 대중에 개방하는 ‘클라우드소싱’과 같은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클라우드소싱 작업자 중 많게는 연 7000~8000만원까지 버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해 이 같은 신규 일자리를 190만 개나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건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자리 변화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큰 변화로 AI·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언택트, 한국판 뉴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정부는 그에 앞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다.

/echo@

포스코인터, ESG 정보 강화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ESG 정보를 대폭 강화한 ‘2019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이어 이번 기업시민보고서에도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주요 성과를 활동영역(Business, Society, People)별로 구분해 하이라이트로 다뤘으며, ‘2019 ESG 우수기업 대상’,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 CSR 최우수상’ 등 ‘기업시



민’으로서 국내외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내용도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했다.

또 모든 주요 성과를 UN SDGs지표와 연결해 제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부각하고, 이를 또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활동영역과 매칭한 점이 돋보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처음으로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국제 사회의 요구에도 적극 부응했다. 특히 다양한 사업을 하는 상사업(業)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장비 및 제품 산업’ 표준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다뤄 주목을 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3일 (음 6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건강에 좋다. **48년생** 자식승진에 고생한 보람을 찾는다. **60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 **72년생** 꿈이 큰 만큼 실망도 크다. **84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여주니 동료에게도 최선을 다하라.
- 37년생** 인생이 고달프고 휴식이 없다. **49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 **61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73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대화에 주의. **85년생** 게임구멍 하나라도 독은 무너진다.
- 38년생** 가는 사람은 불붙지 마라. **50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온다. **62년생** 직장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직은 절자. **74년생** 능력보다 많은 일을 해 내는 날. **86년생** 오후부터 상순 운이니 결정은 오후로 미루라.
- 39년생** 나이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다시 일어사라. **51년생** 때로는 저 주는 것이 이롭다. **63년생**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있다. **75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즐거운 소식을 들고 온다. **87년생** 조급함이 일을 더 더디게 한다.
- 40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이니 감사한 마음. **52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 가며 들어라. **64년생** 언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76년생** 오후에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88년생** 몸이 마음을 따라 주지 못한다.
- 41년생** 매매하려는 마음을 정했다면 망설이지 마라. **53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이라. **65년생** 알아도 모른 척 자식의 실수는 덮어 줄 것. **77년생** 고지가 보이기 시작하니 적극적으로. **89년생** 무지개를 잡으려하니 시간이 없다.

- 42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들어온다. **54년생** 횡재수가 있거나 자손에게 좋은 일이 있다. **66년생** 서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78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 **90년생**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날아간다.
- 43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나 내게는 쓸모없는 것. **55년생** 욕심이 과해서 탈이 난다. **67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9년생** 남에게 베푼 선행이 내게로 돌아온다. **91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니지.
- 44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56년생** 모든 일을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68년생** 무더위가 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8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기부도 좋은 방법. **92년생** 흐르는 대로 버려두면 절로 굴러간다.
- 45년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57년생** 지나친 운동이 몸을 더 해친다. **69년생** 작은 먼지에 눈물 날 일이 있다. **81년생**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93년생** 조상님의 제사에 보답하는 하루를 보내라.
- 46년생** 어제의 어려움이 오늘의 결과를 좋게 한다. **58년생** 배우자의 건강을 체크. **70년생**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 **82년생** 장거리 여행을 나설 일이 생긴다. **94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지인에게 말조심을 하자.
- 47년생**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다. **59년생** 말을 줄여야 어른 대접을 받는다. **71년생** 경관이 수려하나 내가 실 곳은 아니다. **83년생**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곳이 생긴다. **95년생** 퇴근시간 의지 하던 상사의 부음이 들린다.



김상희의四季

풍수의 조건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직장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회사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방법은 업무실적이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도 인성이나 근무 태도 역시 보이지 않는 잣대가 된다.

관리자들의 말에 의하면 간단하고 유용한 평가 지표가 있다고 한다. 평소에 책상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면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책상이 너저분하고 어지러운 사람은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반면에 책상 정리를 잘하고 깔끔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는 게 통일된 의견이다.

단순히 책상 정리 하나로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집안 풍수의 중요성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가구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기 마련이다. 복이 들어오는 방향을 찾아 바꾸는 것이다.

식물이나 거울을 필요한 곳에 들여놓기도 한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는 그것만으로도 발복하는 풍수 인테리어가 됐다고 판단하겠으나 복이 들어오는 방향과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보기 좋게 유지하는 것이다. 좋은 기가 드나드는 현관은 들고나는데 걸리는 게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현관에 이것저것 쌓아놓으면 좋은 기운이 막히기 마련이다. 거실과 부엌 역시 마찬가지이다. 발복의 방향과 위치를 찾아 가구를 배치했다면 주변을 깔끔하게 만들어야 한다. 깨끗함은 좋은 풍수 인테리어의 우선 조건이다. 부자의 집이 지지부진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책상 정리를 잘해놓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좋은 직원이라는 판단은 틀리지 않다. 그게 뭐 중요하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 스토쿠는 가로 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9			4	8	C	3		5		
A			2			B				6
	B	7	4			1				2
			8	B				6		
	2	9	7			6				4
	8			A				1		C
6	3					8				A
	9			2			4	8		B
			5			9	7			
1				A			3	9	2	
	C		7		4					B
		8		6	9	2	5			4

30%~50% 무료배송
알라딘 여름 취미 도서할인전

주말에 0원으로 구매가능
Yes24 주말 할인 쿠폰전

새로운 퍼즐 만들기 취미도서는
쿠팡로켓배송으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0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04호

유통업계, 블루오션 中 공략 2題

건강식 내세워 '덤벨경제' 공략

오리온 중국법인 현지 생산·판매
中 간편대용식 시장규모 약 9조
6월 매출 13.8%·영업익 53.6% ↑



중국 닥터유 단백질과바, 에너지견과바 /오리온

오리온이 전통적인 효자상품인 파이나 스낵에 더해 뉴트리션바로 영역을 넓히며 중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중국에 닥터유 브랜드를 론칭하고 '닥터유 단백질바'와 '닥터유 에너지바'의 중국 법인 현지 생산·판매를 시작, 중국 뉴트리션바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영양가 높고 건강한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 수요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배경 속에서 오리온은 현지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영양 성분을 강화한 제품들을 출시하게 됐다.

뉴트리션바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활력과 영양을 즉시 보충할 수 있는 간편 대용식으로 덤벨 경제 효과를 받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덤벨 경제란 건강 및 체력 관리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위라벨' 열풍에 따른 삶의 질을 추구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웰빙·건강에 관한 관심 및 등산·자전거·골프 등 레저 인구 증가와 함께 간편 대용식도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식사 대용으로 구매하면서 그 수요가 늘었다.

중국 간편 대용식 시장 규모의 성

중국 닥터유 단백질과바, 에너지견과바 장은 남다르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간편대용식 시장규모는 571억1000만 위안(약 9조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200억 위안(약 2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온의 중국 시장 진출 성적표는 긍정적이다. 오리온은 지난 6월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1573억 원, 192억 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3.8%, 영업이익은 53.6% 증가했다. 그중 중국법인 6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730억 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81억 원을 기록했다. 오리온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



/오리온

치다. 업계에서는 중국시장의 경우 6월이 전통적 비수기라는 점에서 이번 실적이 사실상 오리온 제품의 중국 내 수요 증가 및 점유율 상승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닥터유 단백질과바와 에너지바는 오리온 중국법인의 하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다. 기존 파이와 스낵, 비스킷, 캔디류(껌, 젤리) 카테고리에서 나아가 뉴트리션바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다.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품질, 맛 등 제품력에 중국 법인의 현지 마케팅·영업 노하우 등을 더해 중국 뉴트리션바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건강 트렌드가 지속 확산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 건강설계 콘셉트의 닥터유 브랜드를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닥터유 단백질과바와 에너지바가 중국 법인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화장하는 대륙의 남자들 남성화장품 시장 정조준

中 남성 화장품 시장 '블루오션' 메이크업 제품 전년비 68% ↑



비디비치 남성용 화장품 '비디비치 옴므' 론칭 /신세계인태내셔널

국내 주요 뷰티기업들이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중국 화장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한 데 비해, 남성 화장품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인태내셔널의 화장품 비디비치가 브랜드 최초로 남성 전용 라인 '비디비치 옴므'를 출시하고, 중국 온라인몰 티몰 글로벌관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비디비치는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중국 남성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취향을 분석해 개발한 남성 전용 라인으로 2세대 그루밍족을 사로잡을 방침이다.

비디비치는 남성 전용 화장품은 기초 라인에 중점을 뒀다. '비디비치 옴므 블루 밸런싱 스킨케어'는 클렌징 폼과 에센스 스킨, 로션 등으로 구성됐다. 현지에서 남성 기초 화장품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에 주목한 것. 중국 타오바오·티몰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용 스킨케어 카테고리 중 매출이 가장 높은 품목 1위는 클렌징폼이었고, 스킨·로션, 남성용 크림, 마스크팩 등이 뒤를 이었다.

신세계인태내셔널 관계자는 "최근 중국 2세대 남성들 사이에서 '베이글 남', '강아지남' 등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2세대 남성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비레디를 론칭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남성 메이크업 시장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중국 타오바오·티몰에서 남성 메이크업 제품이 3억3000만 위안(약 564억 원) 어치가 팔리며 전년 대비 67.9% 성장하며 발전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비레디는 지난해 티몰 글로벌관에 입점해 역지구 형태로 운영 중이다.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후'에서 남성 라인 '후 공진향:군'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 주요 뷰티기업이 라인을 확장하는 이유는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이 매년 지속 성장하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29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은 지난 2018년 144억8500만 위안(약 2조4768억 원)에 달했다.

/조효정 기자

'수출 빨간불'... 中 支 援 다 각 화 목 소 리

중기연, 수출 촉진 방안 보고서
대기업과 협력 등 방안 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해외시장에 최적화된 수출 아이템 발굴 시스템 구축 ▲ 거점별 온라인 수출지원센터 구축·운영 ▲ 보세지역 활용 전자상거래 물류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 구축한 대기업과 수출 협력 ▲ 'K-방역용품' 등 전략 분야 수출 대행 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해서다.

중소기업연구원 임부영 연구위원은 2일 펴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중소기업 수출 촉진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수출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소비패턴 변화, 비대면 거래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연구위원은 "지원의 상당부분이 오프라인 중심의 해외마케팅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수출 대응체계가 부재하다"면서 "비대면 거래에 활용 가능한 홍보 전략도 미흡하고, 국내외 소비·유통 등에 관한 빅데이터 확보와 활용 전략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우선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먹힐 수 있는 수출아이템의 발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소싱과 품질 컨트롤을 위해 유통 MD 등 현장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유통업체·수출대행사가 유망수출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제품 개발과 제작과정,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서다.

주요 거점별, 지역별로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국내 유통업체와 공공수출지원기관이 협력해 현지에 인프라를 조성, 수출·유통 애로 해결에 공동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다.

빅데이터를 이미 구축한 대기업과의 수출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카드사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빅데이터를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규제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타다, 가맹택시 시장 진출... 업계서 러브콜

타다가 연내에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맹택시 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차량 환경으로 명성이 높았던 타다가 가맹택시 사업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운송가맹사업 면허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격을 확인받는 절차다.

가맹택시란 가맹사업자가 개인·법인 택시를 모아 브랜드 택시로 운영하는 형태다. 일정한 가맹비와 교육비, 콜당 수수료를 받는다. 카카오톡의 '카카오T블루'와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가 가맹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타다는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4월 렌터카 기반의 11인승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사업을 종료하고 카니발 1500대의 매각 절차를 밟았다.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 후 타다는 고급 택시 서



타다 프리미엄 차량 모습. /타다

스인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호출 서비스 '타다 에어'를 운영해왔다.

기존 택시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가맹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던 타다가 가맹택시 사업으로 부활을 예고한 데에는 택시업계의 러브콜을 받은 것과 함께 중형택시 시장에서의 사업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타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택시 수요가 줄었지만 위생 등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다 프리미엄 호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다"며 "여러 법인택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맹택시 진출을 결정한 만큼 택시 업계와 협력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한진

지역별 '안전담당관' 운영

한진이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본부별 안전 활동을 담당할 '안전담당관' 직무를 새로 만들어 운영한다. 한진은 수도권, 경인, 부산, 영남, 호남, 중부 총 6개의 지역본부별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재직자 중 1명씩 선발해 안전담당관으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도 안전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사업별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 지역별 안전보건담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그리고 현장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주관하는 현장관리감독자 등 전사적인 체계를 갖추고 안전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시설 안전 강화 등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새로운 직무를 도입했다.

지난 7월초 임명된 안전담당관은 안전 관련 정책과 법규, 위험성평가, 안전 점검 조사·분석 관리 등 필수 직무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강도 높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용산구 한남동 'DK밸리뷰' 반사효과 누리는 중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17년만에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

앞쪽엔 한강, 뒤쪽엔 남산이 있는 서울의 금싸라기 땅. 한남 3구역에 아파트 198개동 5,616가구인 미니신도시 급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현대건설이 사업비 규모만 7조원에 달하는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을 품에 안았다. 아파트명은 '한남디에이치더로얄'이다. 단지내에 상업시설로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고, 세계적인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에비슨영과 협업해 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 111만㎡ 부지를 재개발하는 한남 재개발 사업은 1~5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1구역을 제외한 2~5구역이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며 이번에 현대건설 시공사를 선정한 3구역의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다.

소형 오피스텔 'DK밸리뷰 한남' 아파트 규제 강화에 상대적 인기

'DK밸리뷰 한남'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우수한 입지를 갖춘 뛰어난 상품성에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에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권의 21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을 높여 '빚내서 집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대책의 대표적인 규제는 역시 '대출'이지만 대출 규제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 등에게도 이 같은 규제가 가해져 신규 진입이 어렵다. 대출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주택 구매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은 이번 규제를 기점으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69곳, 투기과열지구 48곳으로 늘어났다. '규제지역 대출 제한'에 걸려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2~30대 젊은 사회 초년생들 중에 은행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전세로 나올 집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괄적 규제로 집을 못 사게 하니 전세로 눌러앉은 이들이 늘어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젊은 수요자들은 꼭 아파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거형 오피스텔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파트 전셋값 정도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못지 않은 상품 설계를 선보이는 만큼 굳이 아파트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도심 녹지 더할 프리미엄 'DK밸리뷰 한남' 용산공원과 한남근린공원을 정원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지 안팎의 녹지 비율 등 친환경 요소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도심은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친환경 예코 프리미엄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및 한강과 인접해 있어 '도심 녹지 더블 프리미엄'을 갖춘 곳이다.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근린공원 터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해 이름으로만 존재했던 공원을 실제 조성된다.

풍수명당으로 예로부터 재벌 총수 및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인 부촌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하늘이 내린 터로 조선시대부터 해상교통과 물류유통의 중심지였다. 1920년대 후반 도시가 확장되면서 남산의 남쪽을 주거지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고, 1930년대 후반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이태원 일대의 신축 주거지로 바뀌면서 오늘날 '한남동'이라는 고급 주거지의 기반이 만들어진다.



한남동에 투자가치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 'DK밸리뷰 한남' 분양 스타트

서울시내 최고의 부동산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지역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확실한 미래가치에 가격까지

지하철 경의중앙선 한남역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에 소비자 니즈를 충족한 특화설계로 다양한 타입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DK밸리뷰 한남'이 인기리에 분양 중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DK밸리뷰 한남'은 지하1층~지상10층 2개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56실 규모로 조성되며, 주차시설은 지상과 지하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하 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10실이 들어간다. 이따른 고강도 규제로 아파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누리며 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상가, 빌딩 등에 비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조차도 10억원을 훌쩍 뛰어 넘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소액투자인 만큼 진입장벽도 낮고 환금성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간 아파트에 몰리던 투수수요는 강도 높은 대출 제한과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새로운 제도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등 장벽에 가로막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DK밸리뷰 한남'의 인기는 높다

'DK밸리뷰 한남'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주거형 소형 오피스텔로 우리나라 인구의 54%에 달하는 1~2인 가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세대들과 인근 강남 및 광화문, 종로 등 서울 도심권 접근성이 뛰어나 직장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용산구는 미니신도시 및 용산공원 정비구역 계획사업, 한남 재개발 추진구역 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 효과가 풍부하며, 단지가 들어서면 용산의 노르자 입지 한남동은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요충지로 서울시내 최고의 부동산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한남동 소재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사업지 인근 한남권 공동주택이 평당 약 4,000만~8,500만 원, 오피스텔은 평당 약 4,500만~7,160만 원의 시세형성에 한남동 리디 아파트 한남 터일이 평당 분양가 대비 6년 간 약 4,800만원, 한남 아이파크가 평당 분양가 대비 3년 간 약 27억 원 시세 상승을 했다"며, "매매 및 임대 선호도 높은 실사용 면적 10~11평형 구성된 DK밸리뷰 한남은 미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확실한 미래 가치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문의 1811-0277



한남대교만 건너면 바로 강남생활권! 광화문, 종로 등 서울 도심 접근성도 뛰어나

'DK밸리뷰 한남'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도보 8분, 한남근린공원 도보 10분, 서울용산국제학교가 도보 20분에 위치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한 한차원 높은 공간 효율성과 특화설계로 개성 있는 현대인들의 만족도를 높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3-2번지에 들어설 예정인 'DK밸리뷰 한남'은 지하1층~지상10층 2개동에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56실 규모로 조성되며, 2021년 04월 완공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층에 근린생활시설 10실이 들어가며 주차시설은 지상과 지하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등 6개 TYPE 총 56세대가 2층~8층에 들어선다. 'DK밸리뷰 한남'은 아파트 같은 혁신적인 평면을 구현한 3BAY 형식에 발코니 확장을 통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 했으며, 한차원 높은 공간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거주자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했다. 또한 다양한 타입을 제공함으로써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힌 특화설계로 개성 있는 현대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DK밸리뷰 한남의 홍보관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28 강남 스위트빌 2층에 마련되어 있다. 사전예약 후 방문한 고객은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11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7층~10층에 A TYPE 2세대, A1 TYPE 2세대, B TYPE 4세대, B1 TYPE 2세대, C TYPE 2세대, D TYPE 16세대 등 6개 TYPE 총 28세대가, 전용면적 10평형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A TYPE 6세대, A1 TYPE 6세대, B TYPE 12세대, B1 TYPE 6세대, C TYPE 6세대, D TYPE 20세대

최고의 입지가 최고의 프리미엄을 만듭니다
한강과 남산을 동시에 누리는 프리미엄!!

DK밸리뷰 한남

부촌 프리미엄이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 지역에 한남역(경의중앙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같은 혁신적인 평형의 혁신적 인테리어가 더해진 미래가치가 높은 입주조건 프리미엄의 완성!

강남

한남동 프리미엄
DK밸리뷰 한남

24시간
문의전화

1811-0277

시간당 70mm 물폭탄... 경기·충북·강원 등 피해 속출

토사·산사태로 실종·사망 잇따라
충북·강원지역 열차운행 일시통제
배수로 역류에 마을 고립사태도

새벽부터 시간당 30~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강원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안성 285.5mm, 충북 단양(영천) 279mm·제천 244mm, 강원 영월 201.7mm 등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기 안성에서는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돼 주민 1명이 사망했고, 충북 충주에서는 소방서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춘천·철원·화천·양구군 평지·홍천군 평지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등으로 1명 사망·2명 실종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안성시 일죽면의 한 양계장 건물과 주택이 토사에 매몰되면서 50대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주민은 산사태 직후 집 밖으로 탈



2일 중부지역에 쏟아진 '물 폭탄'에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가 고립되고, 영덕리 둔대마을 회관 앞길도 유실돼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연합뉴스

출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이 주민의 아내와 딸 등 다른 가족 3명은 무사히 탈출했다.

안성시 죽산면에서도 산사태가 나면서 주택이 매몰됐다. 이곳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실종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하천에서 피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충주소방서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송 모

(29) 씨로 추정되는 이 대원은 하천물이 불차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다가 지반이 침하하면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보내 사고 지점과 하천을 따라 실종자를 찾고 있다.

강원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에서도 한 주택 일부가 토사 유출로 파손됐다. 이곳에서 잠을 자던 81세 할머니와 11세 손녀가 방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

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이들을 구조했다.

◆저수지 범람에 대피령... 마을 고립도

경기 이전에서는 이날 산양저수지 등 일부가 무너지면서 광주와 수원의 주택들이 물에 잠겼다. 이전시는 오전 7시 30분께 독 붓고 신고를 받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에서는 폭우로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원곡천 주변 주택 침수가 잇따랐다. 오전 5시 20분께 80가구 주민 120여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주천저수지도 만수위에 도달했다. 음성군은 오전 8시께 저수지 인근 원당리와 주천리 350여가구, 700여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의 지방하천인 성산천도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양덕3리와 용성리 301가구 530여명의 주민도 대피했다. 또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의 오갑천 등 일부가 유실되면서 감곡·삼성면 등에서는 주택·과수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토사 유실·하천 범람에 도로·철길 끊겨

이날 새벽 강원·충청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철도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오전 6시부터 충북선과 태백선 철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영동선 역시 현동~분천역 간선로에 토사가 쌓이면서 오전 8시 30분께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중앙선 원주~영주역 열차도 오전 9시 30분께부터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오전 3시 10분께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중원터널 부근에서 토사가 유출됐고, 오전 5시 27분께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제천휴게소 부근에서 토사가 유출돼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제천~평택 고속도로 평택 방향 천등산 부근에서도 토사가 비탈면으로 흘러내려 오전 5시부터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다.

오전 7시 10분께 중부고속도로 충북 음성휴게소 부근의 비탈면 토사가 유실되면서 차량 운행이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다. 비슷한 시간 중부고속도로 경기 안성 일죽IC 부근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밀려들어 나무가 쓰면서 도로가 막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광주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전환

7일간 지역감염 확진자 미발생
방역 당국 지역 감염원 파악·통제

광주시가 오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한다. 최근 7일간 해외 입국자 이외에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이 지역 감염원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7일 지역 감염이 발생하면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150만 시민과 방역 당국이 줄타기의 노력을 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게 됐다"며 "나눔과 연

대의 광주 정신을 보여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지난달 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뒤 33일 만에 1단계로 전환하면서 각종 행정조치가 해제되거나 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조치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간격 두기, 명부 작성,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 개최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고 지역 어린이집도 3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장도 관중 입

장이 가능해지지만, 전체 관중석의 1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기준을 완화하되,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계속 유지해 QR코드 사용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205명으로,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일주일간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중 중증환자는 3명이며 60병상에 확진자가 입원 중으로, 잔여 병상수는 107병상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626명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 조감도.

화순군, 산림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시동

ICT 접목해 힐링 화순 조성 추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 증가에 대비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과 산림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화순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숲길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역사문화, 농촌체험, 숲길 등 자원을 연계해 '힐링 화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민선 7기 화순군은 산림 휴양·레저 시설 확충, 다양한 숲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림복지 수요

증가... 휴양·치유 기반 확충

화순은 전체 면적의 73.2%가 산림 지역으로 12개 명산 191km 등 숲길, 오감연결길·치유 숲길·치유의 숲 센터·숲속 체험장이 조성된 '만연산 치유의 숲', 백야산·한천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치유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올해는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과 전국 최초의 '의료연계형 산림치유 시설'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천자연휴양림 일대 2500㎡ 규모로 조성될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에는 3년간 50억 원이 투입된다. 실시설계를 올해 완료하고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부산시,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진행

200명 모집, 수영구 영도구서 활동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방경찰청이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활용해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동네 곳곳의 위험 요소와 생활불편 요소를 발굴하는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운영 지원비, 부산지방경찰청은 지역경찰서(지구대) 등 수요처 확보와 방법 활동을 지원한다. 일자리 사업 수행은 해당 구·군 시니어클럽에서 맡는다.

올해 사업비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지원하는 3억원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비 5억원(국비 50%·시비 50%)으로 총 8억원이며 부산시는 내년부터 16개 구·군 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200명으로 시범사업 대상자인 남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수영구 영도구에서 활동한다.

/부산=하의원 기자 bsmorning@

김천시 저출산 대응 장관상 수상

경북도는 7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 대표로 선발된 김천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광역 3곳, 기초 8곳 등 총 11건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대회이다.

이날 김천시가 발표한 '산모, 아기 돌봄 100일 대작전' 사업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2020년 이후 출산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모 아기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이용일수 30일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안동시, 경북바이오 2차 산단 조성 본격화

안동시는 지역발전의 역원을 담은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 49만 6000㎡ 규모로 조성된다.

경북 산업융합포럼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연계되어 개발된다.

지난달 31일 공사현장에서는 권영세 안동시장과 시행 및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안전지원제를 올렸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재해 없는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지하차도 침수피해 사전에 막는다

서울시, 침수대응 행동매뉴얼 표준화 침수경보시 초기대응반 투입 운영 한전서 전원 차단... 감전사고 방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서울시가 국지성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차도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대응매뉴얼 보강과 관내 배수용량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서울 지역에는 총 74개소의 강제배수시설물이 있으며, 지하차도는 65개소다. 지하차도 배수펌프는 수위에 따라 자동 운전하며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경고음이 울려 유관기관에 연락하도록 돼 있다. 펌프 3대가 가동하면 감시자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 교통을 통제한다.

시는 침수대응 조치 행동매뉴얼(선제적 차량통제 기준 등) 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관리기관별 통제단계와 대응방법이 상이해 기준을 정립,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보강하기로 했다.

매뉴얼에 의하면 지하차도 침수 전

에는 배수시설을 일제 점검해 사전에 정비하고 시설물들의 동작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기상특보(호우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 근무자 배수로 유입구 점검 ▲배수구와 집수정 이물질 제거 ▲집수정 수위 및 펌프 가동상황 지속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 호우경보 발령 후 예비펌프가 가동되거나 집수정 수위가 HWL에 도달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 배수펌프장 침수경보 시 도로사업소나 서울시설공단과 같은 관리기관에서 초기대응반을 투입해 운영한다.

만약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을 때에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원을 차단한다. 이후 상황전파 및 비상용 장비 투입을 준비한

다. 이동식 비상발전기가 현장에 투입돼 전원을 공급하고 상설 배수설비와 예비 장비를 활용해 지하차도에 고인 물을 밖으로 퍼내 지하차도 복구를 완료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대응 조치 행동매뉴얼을 관리기관에 배포해 지하차도 근무자에게 상시 숙지토록 하고 유사시 매뉴얼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하차도 배수용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9~12월 총 5억원을 투입해 지하차도 배수용량 적정성 검토 및 개선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시내 침수 취약시설인 3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벌인다. 외부전문가 2명, 도로시설과 2명, 관리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근무자 침수대응 행동매뉴얼 숙지 여부, 교통 통제 체계, 배수시설 용량과 유지관리 상태, 수·배전반 설치 위치, 펌프 시설, 제어 시스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총 6000억 지원... 시민참여예산 투표 실시

시민이 사업 제안부터 예산 편성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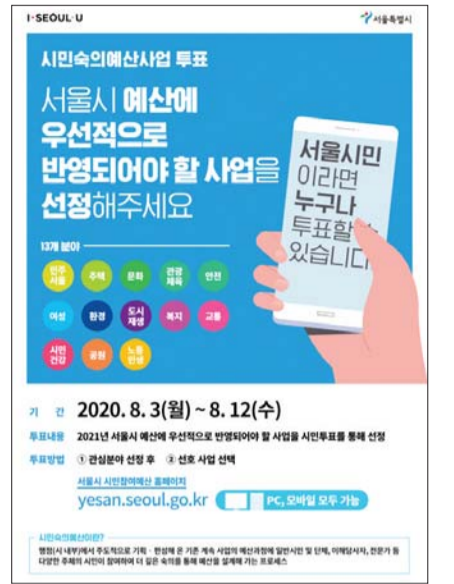
서울시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를 3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 97개 중 10개를 선정해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투표와 13개 분야의 기존 서울시 사업 126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5300억 원을 차등 지원하는 '시민속의예산(속의형)' 투표가 함께 진행된다.

전자는 시민편의를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다. 후자는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속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예산을 심의·조정하는 것이다. 투표 기간은 각각 이달 29일과 12일까지다.

투표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서울시 '엠보팅'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제안자뿐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개 구청과 지하철 시청 역사 내에 현장투표소도 마련된다.

시는 이달 29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어 제안공모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승인·결정한다. 결정된 예산안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밖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중 1차 심사로 선정된 '우수실행사업' 후보 10개에 대한 시민 전자투표도 엠보팅 앱을 통해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한마당 총회'에서는 이 중 6개 우수사업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양질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번 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기자

장애인콜택시 운행인력 늘려 확대 운영

서울시-시설공단, 택시 42% 증차 장애인 이동권 증진·편의성 향상



장애인콜택시. /서울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수를 작년 437대에서 올해 620대로 41.9% 늘려 이달부터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승합차에 리프트나 슬로프 등 장애인 맞춤 시설을 설치한 특장차량을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증차에 따라 정규직 운전원 2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장애인콜택시 운행인력을 520명에서 720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공단은 장애인콜택시 탑승에 걸리는 평균 대기시간이 5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기관은 내년에는 대수를 720대로, 운전원 수를 840명으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임차택시 50대를 포함하면 서울의 연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탑승 가능 인원은 작년 118만

명, 올해 168만명에 이어 내년에는 204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시와 공단은 장애 유형, 인원 및 이동장소, 이용시간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와상형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전세버스', '심야운영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맞춤형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반 휠체어보다 긴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와상형 장애인콜택시' 10대를 신규로 도입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전국 운행

이 가능한 장애인 전세버스 2대도 6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심야운영 장애인콜택시'의 수를 11대에서 25대로 늘렸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규모를 대폭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내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모집

서울 4개 권역으로 나눠 활동



서울시내 공공미술. /서울시

서울시는 시내 곳곳의 공공미술 작품을 찾아 소개하는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으로 활동할 시민 40명을 이달 4~23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서울을 동북·동남·서북·서남 4개 권역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도슨트 프로그램'도 전면 확대해 더 많은 시민에게 작품을 직접 소개하기로 했다. 1차로 발굴단이 현장을 답사해 작품을 찾으면 2차로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공공미술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사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사전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는 29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공공미술의 이해, 지역자원으로서

의 공공미술 발굴, 도슨트 활동의 이해 등이다.

신청 접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향후 '공공미술 발굴지도'를 제작해 관광안내소와 구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경로당 단계적 운행 재개

서울시는 3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경로당 휴관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심신 안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경로당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로당 운영 재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전제로 한다.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1일 4시간)다. 경로당 내 식사 등 취사·취식 행위는 금지하고 당분간 프로그램도 중단한다.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 명부 작성, 체온 확인은 기본이다.

경로당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용 규모의 50% 인원만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1명당 평일 주 2~3회만 이

용도록 시는 권고하고 있다.

서울내 자치구와 대한노인회지회는 ▲경로당내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 ▲경로당 이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보관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제공 등을 지원한다.

경로당별로 지정된 감염관리책임자는 출입자 전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 시설 소독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3일 (월) 음력 : 6월 14일

수도권 날씨 26~2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예보: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삼성 노하우 전수받은 화진산업 가보니 06



Life

[라이프] 호캄스 인기예 파자마룩 뜬다 1



백제의 길... 왕가의 길... 문화유산 따라 안전한 여름나기

SNS 인기 스포팅 경주 대릉원 내 천마총.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진옥섭)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코로나 19를 피해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에서 안전하게 언택트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7개 '한국 문화유산 방문코스'를 2일 밝혔다.

공개된 '문화유산 방문코스'는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거점들로 코로나 여파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언택트 문화에 적합한 장소들이다. 1박 2일과 2박 3일 일정으로 구성된 코스는 총 7개 코스다.

'천년 정신의 길'은 천년고도 경주와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수도인 안동의 대표 명소들이 포함되어있으며, 특히 대릉원 일대는 4계절 내내 아름다운 장소로서 SNS에서도 인기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백제 고도의 길'은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을 통해 백제 문화를 제대

문화재청-한국문화재단 언택트 문화유산 방문코스 7선 공개 추억 쌓는 '스탬프 북 찍기' 행사도

로 느낄 수 있는 코스로 동선이 짧아 1박 2일로도 충분히 백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소릿길'은 전북과 전남 지역의 우리 옛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코스로, 우리나라의 전통소리인 '남도민요'를 경험할 수 있다.

'설화와 자연의 길'은 전설을 품은 세계유산 제주도의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들로 구성되었다.

'왕가의 길'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루 느낄 수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궁궐과 산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교통과 관광, 숙박 인프라가 잘 발달한 수도권 지역이라 예산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서원의 길'과 '수행의 길'은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산사를 중심으

로 조선시대 성리학적 세계관과 선비정신, '불교'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는 '문화유산 스탬프 북' 찍기 행사도 진행한다. 스탬프 북은 경복궁, 창덕궁 내 문화상품 및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의 집을 비롯하여 각 거점 지역 문화유산 비치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불국사, 창덕궁 등 각 문화유산의 특징을 담은 도장도 받을 수 있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에 그만이다. 스탬프 북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한다. 스탬프 3개 획득 시 온열안대 2개(10,000명), 3코스 10개 이상은 메쉬파우치(1,500명), 5코스 20개 이상은 전통문화테마숍 홈페이지 내 상품(최대 10만원, 500명)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2020년 문화유산 스토리 공모전'도 추진한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제주라프, '디지털 라이트 페스타' 개최

세계 유명작가 예술작품 디지털로 코로나로 중단했던 전시 SNS서 공개

예술, F&B, 숙박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 제주라프(대표 이원광, 전찬민)가 세계 유명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디지털 라이트 페스타'를 오는 12월 31일 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라프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브루스 먼로의 'Field of Light'를 세계 3대 (호주 울룰루, 미국 캘리포니아 센세리오, 대한민국 제주)영구 전시 작품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정상급 작가 7명의 14개 조명 작품을 전시했으나, 코로나19 및 내부 행정적 사정 등으로 인해 전시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언택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작가들과 제휴를 맺고 작품을 디지털로 편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디지털 라이트 페스타를 개최하게 됐다.

디지털라이트페스타에 소개되는 작품과 작가의 면면은 화려하다. 뉴욕타



제주라프가 최근 제주도 조천읍 일대를 미디어 파아트 빌리지로 조성하는 등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했다. /제주라프

임즈가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선정된 브루스 먼로의 작품 'Oreum', 'Water-Towers', 도쿄 올림픽 대표 작가로도 선정된 쟈 르윈의 'The Pool(Reflect)', 미국의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 브루클린 다리 등에 설치되어 화제가 된 톰 푸루원의 '오두막' 작품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팝아트 작가 아트놈의 팝아트 작품 및 과학철학 상명대 교수의 '형태의 근원', 이병찬 작가의 '어반 크리에이터' 등 빛과 색을 주제로 한 국내외 작가 12명의 20여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싱가포르 관광청

관광 장려 '다시 회복하는 싱가포르' 캠페인

현지 라이프스타일·관광산업 지원

싱가포르가 현지 라이프스타일 및 관광상품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관광청(STB),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센토사 개발 공사는 현지 라이프스타일 및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다시 회복하는 싱가포르'(SingaporeRediscover) 캠페인 론칭을 지난날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캠페인은 싱가포르 자국민 대상으로 싱가포르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캠페인이다. 관련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 및 마케팅 목표를 위해 약 390억원(4500만 싱가포르달러)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라이프스타일 및 관광 산업, 비즈니스



싱가포르관광청 '다시 회복하는 싱가포르' 캠페인 론칭. /싱가포르관광청

스 협회, 지역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폭넓은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독특하고 가치 있는 체험 활동, 패키지 및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회복하는 싱가포르' 캠페인은 앞으로 약 9개월간 진행되며, 더 많은 활동과 콘텐츠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

남해의 보석 거제·통영, '비행기 타고 가요'

나라투어

통영·거제 1박2일 여행상품 출시

동양의 나폴리 거제·통영이 경상남도 관광의 중심으로 부상중이다.

국내여행이 떠오르고 있는 시점, 국내여행 전문 나라투어(나라여행)가 '비행기를타고 편리하게 떠날 수 있는 통영·거제 1박2일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상남도의 도움을 받아 특별 요금을 편성한 '통영·거제도 1박2일 여행상품'은 짧지만 또 다른 힐링의 대안으로 떠오를 분위기다.

첫째날 일정은 김포에서 국내선 티웨이항공을 타고 부산(김해)공항에 도착, 버스에 탑승해 해저터널인 거가대교를 통과 거제도에 도착한다.

거제도 해금강 유람선을 이용하여 십자동굴을 관광 한 후 보물섬 외도 보타니아를 보고 통영으로 이동, 동피랑



한려수도 조망 통영 케이블카

/통영시

마을 이용후 강구항(중앙시장)에서 자유시간을 갖는다.

둘째날은 통영 앞바다 아름다운 섬 투어에 나선다. 바다백리단길 4구간 에코아일랜드 '연대도'러블리 5섬여행, 연대도 지계길과 만지도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체험, 내분의 전 대통령이 다녀간 그림같은 학림도 유람, 통영 시내투어 미륵도 일주관광, 통영케이블카 탑

승 등 일정은 오히려 너무 빠빠하다.

특히 통영케이블카를 타고 10분 오르면 아름다운 통영항과 한려수도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관광 일정을 소화한 후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올라오는 스케줄이다. 식사는 현지 한식으로 3식이 제공된다. 출발은 매일 출발 가능하며 1인 참가비는 22만9000원 부터다. /이민희 기자

제주신화월드-스튜디오드래곤

복합리조트, 드라마스튜디오와 콘텐츠 제작

공동사업 개발 업무협약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는 드라마 스튜디오 '스튜디오드래곤'과 손을 잡고 향후 공동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양사의 이번 파트너십은 '스튜디오드래곤'의 지식재산권(IP)과 제주신화월드가 보유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사는 추후 협의를 통해 드라마 캐릭터, 스토리, 미술

디자인 등 '스튜디오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IP를 제주신화월드의 객실 상품, 테마파크 및 전시공간, 식음매장 등 다양한 사업군에 연계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신화월드 에드먼드 웬 사장은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며 "제주신화월드의 상품 및 서비스와 스튜디오드래곤의 K드라마 콘텐츠를 결합한다면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